

■ 2018년 전문자료집 ■

교육·연수보고서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8년 전문자료집 - 교육·연수보고서

☐ 목 차 ☐

1. 기획홍보팀	
◦ 18-01 프로그램(활동) 개발의 원칙	6
2. 기능향상지원1팀	
◦ 18-02 아동의 문제에 따른 아동상담접근의 이해	10
◦ 18-03 전기전자 기기 및 생활안전	20
3. 기능향상지원2팀	
◦ 18-04 의사소통장애 상담의 이해와 실제	26
◦ 18-0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구조의 재정립	34
4. 가족문화지원팀	
◦ 18-06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46
◦ 18-07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52
◦ 18-08 2018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58
◦ 18-09 2018 비영리 미디어컨퍼런스 ChangeON	62
5. 지역연계팀	
◦ 18-10 2018년도 상반기 인천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교육	72
◦ 18-11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공개 Conference(13차)	80
◦ 18-12 제8회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84
◦ 18-13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90
◦ 18-14 상담사례 교육연수	96
◦ 18-15 어르신상담센터 공개상담슈퍼비전	110
6. 운영지원팀	
◦ 18-1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회계기초)	114
7.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18-17 2018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1차 전문인력 신규교육	118
8.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 18-18 우라카와 베델의 집을 다녀와서	136
◦ 18-19 2018년 서초열린세상 Recovery Workshop 결과보고서	144
9. 중간관리자연수	
◦ 18-20 장기근속자 국외 선진지 연수	152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매뉴얼 개발 사업보고회 프로그램(활동) 개발의 원칙



주 최		노틀담복지관
기 간		2018. 08. 22(수)
장 소		노틀담복지관
참석자	팀 명	기획홍보팀
	명 단	고광원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3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매뉴얼 개발 사업보고회 - 프로그램(활동) 개발의 원칙 -

- 발달장애 특성(다른 의사소통 방식, 다른 사회관계 방식, 다른 사고방식 등)의 의미
 - 의사소통, 사회관계,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활동·관심, 일부이지만 감각과정 측면에서 도전과업 발생
 -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않거나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음
 - 프로그램 환경에서 공유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사람이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만 게임의 규칙을 전혀 듣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됨
- 전통적인 지원 방식
 - 전통적인 지원방식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르고 있음
 - 그런데 이 방법은 자폐성 장애인에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자폐성 장애인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게 되었음
- ‘자폐 문화’ 관점의 필요성
 - 자폐성 장애인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를 상기시켜 줄 수 있음
 - 자폐성 장애인의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및 반영 필요
- 시각적 구조화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화 지원 필요
 - 구조화 지원은 주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장애인별로 수정되어야 함.
 - 구조화 지원은 공통점과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개인적 차이점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함.
 - 학습 스타일의 다양성,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의 강점과 도전 과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구조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는 존재하지 않음.
- (1)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의 핵심 원칙
 -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상의 핵심 가치 : 프로그램, 참여자격권, 접근권
 -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참여권한 및 접근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
 - 즉, 발달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접근 할 수 있음.

- 따라서 참여자격권은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개인으로서의 존재, 둘째, 자폐, 이에 따른 결과로 다른 뇌 기능, 그래서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지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두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 자폐증에 공통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개입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격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접근을 방해하는 공통적인 장벽과 개인적인 장벽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화되어야 함
- 즉, 도전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발달장애인은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자격이 있으며, 이 때 권리가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할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지원에 대한 접근까지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성인 주간 프로그램 활동 가이드라인

- 나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활동이 다양해야 하며,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다양한 활동 제공은 참여를 촉진하고, 따분함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다시 다른 활동에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고, 현재 직업이 없을 지라도 개인에게 가능하고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도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강조하여야 한다.
- 소집단 또는 개별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대규모 집단을 이루어 지역사회에 외출하는 경우 개별화된 경험을 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불가능하게 된다. 소집단 또는 개별 경험을 보장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술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시행의 유연성

- 유연한 접근이라는 것은 특징, 차이점, 욕구, 장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행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개별화 전략 필요
-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구조화 지원 필요

○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 기술

- 개별화한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습득하여야만 하는 기술이 있음.
- 예를 들어, 의사소통 목표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습득하여야 하는 필수 요소임.
- 공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을 어떻게 최선으로 습득하게 지원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됨.

(2) 소감 및 제언

1차 교육이 긍정행동지원과 관련한 이론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이었다면 이번 2차 교육은 실제 노틀담복지관에서 사업운영을 통하여 겪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한가지의 도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도전행동이 감소되는 이용인도 있었고 효과가 미비한 이용인도 있었다. 효과가 미비하여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것을 경험으로 삼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용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긍정행동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용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고민을 너무 가볍게 한 것은 아닌지, 단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도전행동의 감소가 아닌 소거를 목표로 두지는 않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가족들과의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생각을 하며,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교육 자료에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가 많이 남겨있다고 사료되어 노틀담 복지관으로부터 매뉴얼1, 2, 3과 발표 자료를 공유 받아 각 팀에 전달하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에 따른 아동상담접근의 이해 워크숍



주 최	인싸이트	
기 간	2018년 6월 18일(월) 10:00-17:00	
장 소	학지사 2층 대강당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명 단	임은주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6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의 문제에 따른 아동상담접근의 이해

1. 아동상담의 이해

1. 아동상담의 역사

- 아동 놀이에 대한 우연한 관찰 : 허그헬무스 (오스트리아 교사)
-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세계를 표현함
-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숙달함
 - > 아동상담의 주요 접근 : 놀이치료

2. 아동상담과 놀이 : 놀이의 치료적 기능

- 치료 초기 저항 극복, 친밀감 형성 (라포형성)
- 언어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좌뇌지향적 현상/ 놀이는 정서적 요소가 강한 우뇌지향적 현상(Schaefer, 1993)으로 내적 세계에 대한 관찰기회제공
- 놀이는 자기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
- 놀이는 어느 심리 치료적 접근에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 (Greencavage & Norcross, 1990)
- 상상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긍정적 처리
- 놀이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됨 (즐거움)
- 놀이 속에서 은유와 신화를 창조 (Frey, 1993)

3. 놀이치료의 정의

- 훈련된 치료자가 심리적 문제를 지닌 내담자를 돕기 위해 놀이의 치료적 힘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인관계 과정 (O' Connor, 1983)

2. 아동상담 이해를 위한 사례

사례 1. 초등학교 2학년 남아

-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동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구”

사례 2. 초등학교 1학년 여아

-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하는 아동 “혼란스러움을 표현, 상실에 대한 애도”

3. 아동상담의 단계

- 초기단계 (Warm-up stage) : 친밀감 형성시기
- 공격적 단계 (Aggressive stage) : 억압된 화, 감정 드러내기
- 퇴행적 단계 (Regressive stage) : 아이 짓, 아이 소리, 돌봄놀이
- 숙달 단계 (Mastery stage) : 앞에서의 놀이를 반복적으로 빠르게 하거나 본인의 원래 놀이로 돌아감
- 이행 단계 (Transitional stage)

1. 초기 단계

- 치료과정의 첫 번째 단계
- 자신을 놀이실에 적응, 치료자와 함께 있으면서 신뢰감을 발달시킴. 주도적 역할을 받아드림
- 장난감 탐색.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질문. 장난감을 이것저것 탐색. 다른 단계에 비해 투사적 의미가 덜 담겨 있음
- 아동에 따라 행동과 기간의 차이가 큼
- 놀이실의 허용을 이해하는데, 1~2회 정도 소요
- 앞으로의 치료적 작업을 위한 안전감, 치료자에 대한 신뢰감 발달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
- 애착에 대한 문제가 주된 이슈인 아동은 이 기간에 시간이 오래 걸림

2. 공격적 단계

- 아동이 놀이치료를 시작하고, 신뢰가 싹트고 편안해 함에 따라, 행동이 변화함
- 이 시기에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를 가장 높게 나타냄
-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은 공격적 놀이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
- 놀이실의 제한을 어기지 않는 한 그러한 놀이는 수용됨.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분노, 좌절, 힘, 통제에 대한 욕구 충족
- bop bag, 동물인형, 손 인형 공격하기
- 공격자의 역할을 맡아 행동하기
- 놀이실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 역할놀이에서 치료자를 향해 대인 공격하는 척하기, 강도, 총 쏘기
- 직접 치료자를 공격하기, 찌르기
- 언어적 공격, 모욕이나 별명 부르기
- 통제와 관련된 이슈 : 치료자에게 지시. 역할 놀이에서 권위자, 놀이방을 제한을 깨뜨리는 행동

3. 퇴행적 단계

- 공격적 놀이가 잦아들면서, 공격적 놀이는 더 퇴행적인 놀이 형태가 나타나게 됨
- 아동은 아기인 척을 하건, 우유병을 빨거나, 치료자에게 부모 역할을 요구
- 놀이 주제 또한 애착이나 양육과 관련된 주제가 나타남. 강한 애착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기기 행동, 웅얼이를 시작해서 생활연령에 맞는 놀이 행동까지 발달
- 안전, 애착에 대한 놀이에 뒤따라 위협, 위험에 대한 놀이가 나타남. 나쁜 사람들이 위협을 하지만, 결국 아동과 치료자가 극복함
- 요리하기, 차 대접하기, 의사놀이 같은 역할놀이, 양육과 관련된 놀이, 아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치료사 역할을 바꾸어 놀이하기도 함, 보호와 구조행동 (애착에 대한 위협), 치료자가 자신의 수많은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애원하는 등 의존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둠

4. 숙달 단계

- 이 단계에서도 이슈를 계속 작업하려는 아동이 있음. 공격성과 퇴행행동이 나타나지만, 짧은 재방문
- 전 단계의 놀이가 틈틈이 돌아가면서 다져가는 놀이가 나타남
- 이전 단계와 다른 점이 공격이슈가 재등장하지만, 다트 던지기, 빌딩 만들기 등과 같이 유능한 기술을 사용. 승화 기제 같은 보다 나은 진전

5. 이행 단계

- 각 단계가 순수하게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사이에 겹쳐지는 시기가 있음
- 이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
- 역할놀이, 극놀이 등은 모든 치료단계에서 나타나지만, aggressive stage, regressive stage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애착 문제의 경우, regressive stage가 먼저 나타나고, 힘이 생기면 aggressive stage로 감

4. 아동상담에서의 놀이주제

1. 일반적인 놀이주제

- 힘과 통제
- 공격성
-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여러 감정들
- 선과 악
- 승리와 패배
- 발달 과업 수행
- 두려움이나 불안의 숙달

- 외상 재현과 숙달
- 정체성
- 경계
- 슬픔과 상실
- 양육
- 퇴행
- 애착
- 위험/위협, 대개는 안전/구조/보호와 함께
- 탄력성

2. 힘과 공격성 주제

- 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
 -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등장은 여러 의미
 - 아동 자신의 자존감 낮을 때 스스로 나쁘다고 여김
 - Splitting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양육자에 대한 상반된 감정 지각
 - 좋고 나쁜 것에 몰두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아주 좋은 아이가 되고자 함

- 공격자-피해자 놀이
 - 아동이 공격자 일 때,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고 놀이에서 역할 바꿈
 - 이 방법으로 표현할 만큼 강한 분노
 - 일상에서 힘이 없다고 느끼므로 지휘권을 가진 공격자로 행동
 -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으로 변화
 - 아동이 희생자일 때, 실제경험 반영, 무력함 반영함

- 일반적 공격성
 - 화가 나서 장난감을 놀이실에 잔뜩 어지르는 행동, 차기, 물기, 명확한 주제 없이 장난감 던지기
 -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분노가 있는 경우
 - 치료자에게 화가 났으나 직접 표현 못할 때
 - 놀이가 어려운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통제력을 갑자기 잃게 된 경우 등

3. 가족과 양육주제

- 가족과 양육 주제
 - 분리놀이 : 연습기, 재접근기 아이들이 하는 대표적인 분리/개별화 재현
 - 분리에 대한 외상 표현
 - 학대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
 - 별로 양육자에게서 분리됨

- 양육놀이 : 물건주기, 안아주기, 껴안기, 잘 돌보기 등. 타자에게 양육 받고 싶은 욕구, 양육하고자 하는 건강한 능력, 자가 양육 (양육을 원하지만 이런 욕구 표현 어려움)
- 양육실패 : 학대, 방치, 나쁜 대우. 과거 자신이 가졌던 나쁜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자신의 self를 처벌하는 것

· 가족과 양육 주제2

- 가게 놀이와 시장보기 : 가게 놀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치료자에게 가게 주인을 시키거나 손님을 시킴
- 아동의 부족감, 이 용구를 물건으로 채움
-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 아동의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욕구
- 아동이 가게 주인이 될 때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가도록 두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제한 받고 있음을 표현
- 성인 활동 : 매니큐어 화장, 성인처럼 데이트

4. 통제와 안전주제

- 묻기, 빠뜨리기
- 망가뜨리기 놀이 : 자신이 다치고 손상될 것 같은 두려움 표현. 과거의 부상이나 병. 자신의 삶에서 망가진 관계. 안정하지 못한 세계. 망가진 집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표현
- 고치기 놀이 : 풀로 붙이거나, 의사놀이. 괜찮다는 욕구. 공격 놀이 후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아동의 두려움을 없애고 원상태로 돌리려는 의도. 망가진 것을 고침으로써 세계를 완성하려는 의도
- 고치기 실패 : 고치려고 하지만 안 될 것 라는 두려움. 고치기에 성공하는 시점이 아이가 좋아지는 시점. 성공할 때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것을 반영
- 다리 만들기 놀이 : 불안정한 세계, 망가지고 부서진 세계. 두 세계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 교류의 의미. 긍정적인 부분이 개입되기 시작함
- 분류 놀이 : 세계가 혼돈스러워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중요대상들과의 관계에서 방어적 분열과 양가적 태도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누려고 함. 통제 불능인 내적 경험을 관리하려는 강박적 방어기제
- 안전놀이 : 아동과 아는 사람의 안전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둠. (도둑을 가두어서 안전하게 해야 함.)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을 특정한 장소 안에나 밖에 두려고 함

5. 대인관계와 관련된 주제

- 독립 : 아이가 실제 의존해야 할 정면에서 도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혼자 하겠다며 무조건 떼를 쓰거나 도움을 지나치게 거절하는 경우
- 자기와 타자간의 안정된 표상을 형성 못하고 있음. 자율감을 발달시키려는 강한

욕구 (과보호 의심). 취약함의 방어기제로서 가짜 자율성 (의존심이 들통날까봐).
 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충족되지 않은 강렬한 의존적 욕구에 의해 위협받음.
 개별화 과정의 일부

- 통제 : 아동이 휘두르고, 두목행세. 통제하려고 하며 명령하는 행동이 보일 때
- 자신의 세계가 혼돈스러울 때. 치료자가 자신을 압도하지 않을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 세계 질서를 유지. 자기에게 힘을 부여
- 놀리기 : 속임수, 놀리기. 부모와 놀리는 관계를 발달시켜왔기 때문. 치료자가 심리적으로 안전한지 시험. 치료자를 간접적으로 휘두르기 위한 목적

6. 과정과 관련된 주제

- 하기와 취소하기 (Doing and undoing)
- 하나의 주제가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상반된 의미의 주제가 뒤따르는 것. 공격 뒤에 긍정적 양육. 긍정적 양육 뒤에 부정적 양육.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주제. 구조 뒤에 새로운 위협
- 아동의 양가적 생각. 경험하는 세계가 혼돈으로 가득하고 혼란

5. 아동상담에서의 관계형성

1. 긍정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목표 (Landreth, 2002)

- 안전한 환경을 형성하기
- 아동의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 아동의 정서 세계 표현 격려하기
- 허용적인 분위기 이끌어내기
- 아동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촉진하기
- 자아책임감과 자아통제를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2. 상담 회기의 기본적 원리

- 아동은 놀이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 아동을 놀이를 주도하며, 상담자는 어떠한 제안이나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아동을 따라감
- 상담자의 주된 임무는 아동에게 공감하며, 행동, 사고, 감정을 따라가는 것임
- 상담자의 두 번째 임무는 적절한 언급, 가능하다면 아동이 실제 경험하는 감정을 언어로 나타냄으로써 아동을 이해한다는 것을 전달
-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로 아동에게 제한을 설정함

3. 아동상담에서 피해야할 사항 (Guerney, 1972)

- 아동의 어떠한 행동도 비판하지 말 것
- 아동을 칭찬하지 말 것
- 아동에게 질문하지 말 것

- 놀이치료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르치지 말 것
- 아동에게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지 말 것
- 치료자가 수동적이거나 조용하지 말 것

4. 아동상담자의 반응이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 (Landreth, 2002)

-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 나는 너의 말을 듣고 본단다.
-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5. 놀잇감 (Landreth, 2002)

- 양육적인 놀잇감 : 아기인형, 우유병, 고무젓꼭지, 빗, 아기침대, 반창고, 의사, 간호사 가운, 요리도구, 음식, 냄비, 가스레인지 등등
- 역량적 놀잇감 : 블록, 농구대
- 공격성을 표현하는 놀잇감 : 공격적 동물인형, 펀치백, 군인, 칼, 다트총, 수갑
- 실제생활을 나타내는 놀잇감 : 인형의 집, 가족, 돈, 계산대, 교통수단 등
- 환상 : 모자, 옷 가면 등등
- 창의적 표현과 감정이완 : 모래, 물, 이젤, 크레용, 플레이도우

6.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 시작 전 동의서 받기
- 전문성 알리는 문서 또는 구두 전달
- 심리검사/ history taking 생육사, 발달사, 교육사
- 가족관계,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아동과 부모, 형제, 친구들과의 관계
- 주 호소 문제 탐색, 시도한 해결책, 변화
- 왜 놀이로 상담을 진행하는지 설명

7. 자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촉진

- 감정 반영하기
-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반응
- 비언어적인 행동 읽어주기
- 내용을 반영하기

6. 아동상담의 최신동향

- 놀이를 활용한 상담
- 아동의 문제행동에 따른 처방적 접근
- 청소년기, 성인기에 확대
- 가족놀이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 교사놀이치료 (kinder therapy)
- 동물보조치료의 활용
- 재난 및 위기 상담
- 애도상담 및 상실에 대한 상담

7. 상담에 의뢰되는 아동의 주요문제

1. 상담에 의뢰된 아동의 주요 문제행동

- 학대와 방임
- 공격성과 행동화
- 애착의 어려움
- 자폐
- 화상을 입은 아동
- 만성질환
- 청각 장애 및 신체장애
- 해리장애와 정신분열
- 정서장애
- 야뇨증과 유분증
- 두려움과 불안
- 슬픔
- 입원아동
- 학습장애 아동
- 정인지체 아동
- 읽기 장애
- 선택적 함묵증
- 자기개념 및 자기존중감
- 사회적응 문제
- 언어장애
- 외상을 입은 아동
- 사회적으로 철회된 아동

2. 애착문제

- 안정애착 VS 불안정애착
- 생애 초기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 부모와의 조화적합성 (goodness of fit)

3. 발달지연

- 발달지연 (언어발달지연, 사회적 상호작용지연)
- 초기 애착관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
- 기질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 (정인지체, 자폐 스펙트럼 장애)

4. 심리적 외상

- 사건 외상
- 대인관계, 발달 외상
- 부모와의 애착이 심리적 외상의 회복을 도움

◎ 결론

요즘 복지관에 내관하고 있는 애착을 문제, 발달지연을 가진 아동들의 증가 및 치료사의 초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교육을 듣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전반적으로 상담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사례를 통해 쉽게 풀이를 해 주면서 진행되었다.

특히, 요즘 주 호소로 애착과 발달지연의 경우에 교육을 통해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상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최근 정보를 얻어 매우 도움이 되었다.

차후 프로그램 진행시 교육에서 얻은 정보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전기전자 기기 및 생활안전



주 최	한국보조공학사협회	
기 간	2018년 11월 09일	
장 소	일산킨텍스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 1, 2팀
	명 단	임주성, 전진영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8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전기전자 기기 및 생활안전

1. 전기전자 기초

전기는 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는 공간에 있는 자유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갈바니는 개구리를 이용하여 생체전기를 발견해 인체에도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람의 신경세포의 전기량은 $10^{-2}V$, $10^{-10}A$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현상에 관여하는 전기량을 전하(q)라고 하고 전자의 전하량 -1.602×10^{-19} 쿨롱의 정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

$$1C = 1A \cdot 1s, \quad 1A = 1 \text{ (c/s)}$$

전류는 회로의 일정 한 점에서 흐르는 전하의 시변화율을 의미하며 전압의 차이로 생성되게 된다. 전하량을 통해 정리하면 단위시간동안 면적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류, 전하 등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도선에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도선의 단면을 지나간 전하의 양은 1C이다. 이때, 전자 6.25×10^{18} 개가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지나간다. 전류의 방향을 +로 보았을 때, 전자의 이동방향은 -가 되기에, 전자 1개의 전하량, 전자의 개수, 방향을 곱하면, $(-1.6 \times 10^{-19}C) \times (6.25 \times 10^{18}) \times (-1) = +1C$ 가 된다.

전기의 흐름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를 직류라고 하며,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교류라고 한다. 주로 직류는 자동차나 핸드폰 등에 사용이 되고, 교류는 콘센트에 사용이 된다.

전기회로의 기본은 전압과 전류가 있다. 전압은 소자에 걸리는 전기적인 압력으로 양 전하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V로 표기되며, 단위전하당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V = dw/dq$ 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1C의 전하가 1V의 전위차를 이동하는 데에는 1J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전압을 통해 전하가 이동하게 되면, 그 주위에 전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를 전기장이라고 말하며, 거리에 반비례하여 그 크기가 줄어든다. 전기장은 자기장과도 그 성질이 유사하며, 방향성을 띄는 벡터 값이라 할 수 있고, 전압과 전류는 크기를 나타내는 스칼라 값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전위차인 전압은 전계와 거리의 곱에 선적분이라 표시할 수 있다.

$$V = \int E \, dl$$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력은 소모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의 시간변화율을 의미하며, 단위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전력은 W(watt)로 표시할 수 있으며, 소자에 걸린 전압과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P = dw/dt = dw/dq \times dq/dt = V \times I$$

저항은 소자의 특성으로 인해 전류의 흐름에 대항하는 값을 의미하며, 옴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저항값이 높으면 절연체, 낮으면 도전체라고 부르며, 구리가 저항값이 1.7×10^{-6} 으로 매우 작기에 전선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하며, 단면적에 반비례하며, 1옴은 1 V/A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회로에서 다중소자일 경우, 직렬이면 커지고, 병렬이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는 주로 병렬연결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자는 저항과 인덕터, 캐퍼시터를 포함하여 고려하게 된다.

다양한 전기전자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회로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원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기를 사용하는 소자와 이를 연결하는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회로를 도식화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의 법칙들을 통하여 회로의 형성을 증명하고 검토할 수 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전류는 소자의 사용량과 더하였을 때, 0이 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테브린의 등가회로’와 같은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한다.

캐퍼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축전지나 배터리를 말하는 장치이다. 금속판 두 장과 양 사이를 채우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은 판의 크기에 비례하고, 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덕터는 자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 코일을 강은 횡수의 제곱과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덕터나 캐퍼시터는 흘러들어오는 교류성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교류 전원에서의 단위시간당의 위상차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파수(Hz)와 이를 통한 정현파 전원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임피던스가 존재한다. 또한 일반적인 회로에서 벗어나 공장과 같은 전력소모가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3상회로와 플레밍의 왼손법칙(전동기)과 오른손법칙(발전기) 등이 있다.

2. 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활 소프트웨어의 변화

기존의 재활 보조공학이라 함은 보조도구를 의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사회가 점차 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회로와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도구 등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를 좀 더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등장도 많아지고 있다. 역으로도 다양한 장애의 특성에 맞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며, 다양한 하드웨어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과 로봇공학, 신소재, 3D프린팅 등의 물리학 및 생물학 기술 등이 융·복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도구들을 생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간단한 예로 가정에서의 생활가전을 조작하기 위한 IoT 기술은 이미 현재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의 감정을 화면인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얼굴분석을 이용하여 고려한 CAI 교수학습도 가능하

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이용한 이동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Speech-to-Text 기능은 현재도 언어장애를 지닌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사용되는 기능이며, 딥러닝을 통해 대화가 가능한 로봇으로 사회성 훈련도 가능함을 보이게 된다.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에 발맞추어 재활공학에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재활과 전기안전

안전은 위험의 가능성을 없이 하고 사고 여건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에는 활동에 대한 이해, 능력 수준, 행위자의 상태, 환경 및 분위기 등이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사고는 지식부족, 기술부족, 준비부족 및 자만과 과신, 관리 불충분 및 불완전 설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의 사고는 비장애인보다 사고의 여파가 크며, 오래 지속되고, 높은 발생가능성과 파악 및 회피가 어려운 점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전기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를 보이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몸에는 신경전류가 흐르고 있어, 감전사고시, 감전된 전류로 인해 신경계의 교란이 나타나 더욱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감전 시, 우리몸은 마른 상태에서 약 44mA정도의 전류를 통과 시킬 수 있지만, 젖은 경우 440mA 이상의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젖은 상태에서의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차단기 설치를 필수로 하여 누전 및 과부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멀티 탭의 경우, 문어발식 플러그는 지양하고, 정격 전류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전력량만을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전기안전 수칙

1. 물기가 있는 손으로 플러그 잡지 말 것
2.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콘센트 가리개를 설치할 것
3.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뽑을 것
4.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한 채로 사용할 것
5. 멀티 탭 등의 허용전류를 확인하고 안전제품을 이용할 것
6. 전기제품 사용시, 플러그에 이물질 제거할 것
7. 반려동물이 케이블이나 배터리를 물지 않도록 할 것
8. 정기적으로 누전차단기를 확인할 것
9. 전자제품 구입 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볼 것
10. 누전 등 이상 발생시, 전기안전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1588-7500)

4. SENDEX 참관



4. 결론 및 제언

이번 보조공학 연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전기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재활공학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하드웨어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향상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생활에서의 안전 및 보조도구의 제작 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발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적인 고려와 더불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SENDEX 참관을 통해 현재 나와있는 실제 제품들을 확인하고, 시연에 참가함으로써 더욱 보조공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복지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향후 더욱 다양한 보조공학도구의 프로그램적인 개발과 안전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도구의 특징과 품목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어, 이용인에 대한 안내와 적절한 정보 제공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의사소통장애 상담의 이해와 실제



주 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언어치료학과	
기 간	2018년 10월 27일	
장 소	한림국제대학원재학교 제1관 한림홀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명 단	정애진, 현은주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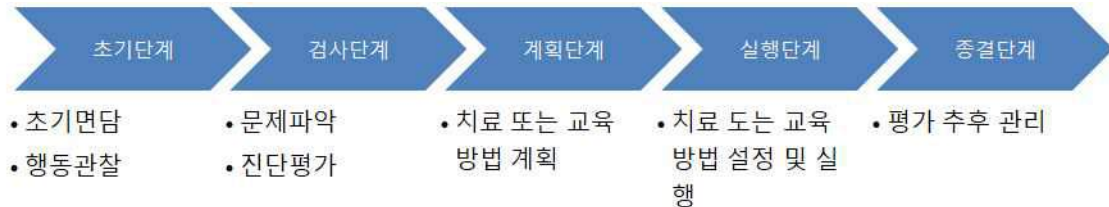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의사소통장애 상담의 이해와 실제

◎ 특수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적 접근



① 초기단계

i. 내담자의 발달력 및 가족사항

1) 주호소 내용

- ▶ 부모가 호소하는 주된 문제
- ▶ 아동과의 첫 만남을 통한 관찰

2) 아동의 발달력

- ▶ 건강,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정서발달 등

3) 가족력 및 가족관계

- ▶ 부부관계 및 가족 간의 관계
- ▶ 부모-자녀 관계
- ▶ 형제자매 관계

ii. 내담자의 기본정보

1) 주 호소 문제

2) 내담자의 사회적 정보

- ▶ 개인사항
- ▶ 가족사항
- ▶ 사회활동사항
- ▶ 상담 경위

② 검사단계

i. 심리검사

1) 놀이평가 / 아동관찰

- ▶ 구조화된 놀이평가
- ▶ 비구조화된 놀이평가

2) 심리검사

- ▶ 인지능력검사
- ▶ 투사검사
- ▶ 부모를 위한 심리검사
- ▶ 장애관련 검사

■ 특수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지체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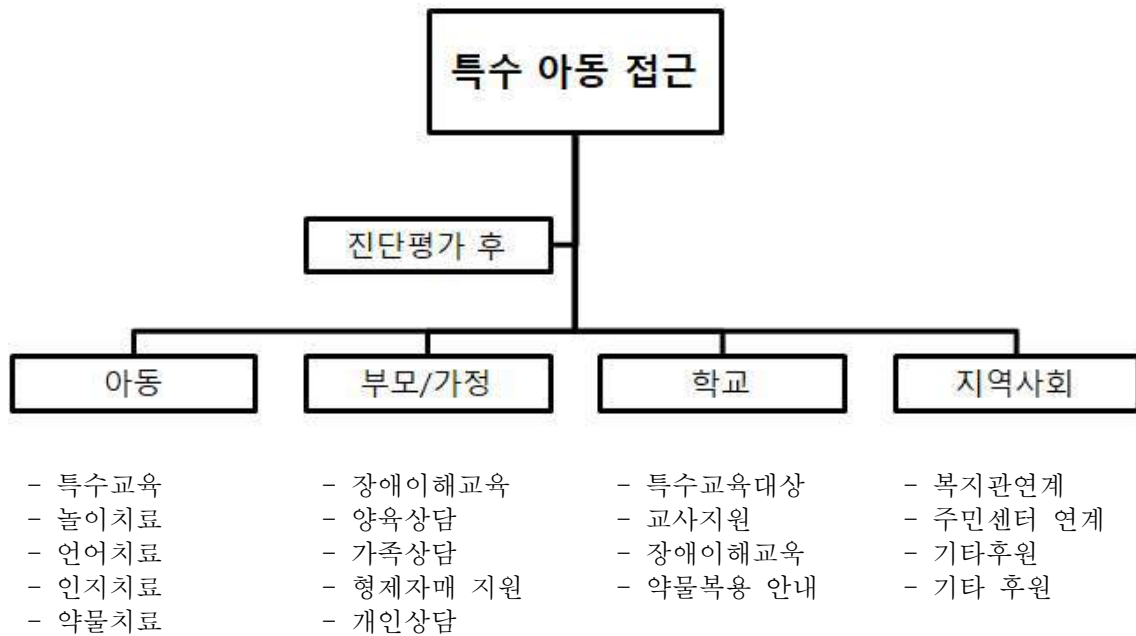
• 장애인 복지법

외부신체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명	선정기준
시각장애	시각에 의한 학습 수행곤란, 광학기구나 매체 사용하여 학습 또는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 (맹, 저시력)
청각장애	교육적 성취에 불리한 청력손실 지닌 사람(농, 난청)
지적장애	지적 기능,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으로 교육적 성취 어려움
지체장애	기능·형태성 장애, 몸의지지, 팔다리 움직임의 제한으로 교육적 성취 어려움
정서·행동장애	지적·感覺的(감각적)전강상 원인이 아닌 학습 무능력,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어려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전반적 불행감, 우울, 신체적 통증, 공포 증이 장기간에 걸쳐 교육적 성취를 어렵게 함.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사회적상호작용, 상동적인 특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장애	수용언어, 표현언어, 조음능력, 유창성, 음성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습장애	개인 내적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 읽기, 쓰기, 수학 등에서 현저하게 어려움.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여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달지체	발달의 자체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특수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적 접근



③ 실행단계

i. 프로그램 목표 세우기

- ▶ 아동의 현재 문제나 증상 해결
- ▶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 능력 향상
- ▶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의 기능 향상
- ▶ 아동의 감정 활용, 취약점 보완

ii. 프로그램 실행

- ▶ 언어치료
- ▶ 놀이치료
- ▶ 인지치료
- ▶ 응용행동분석
- ▶ 감각통합치료

④ 회기진행

- i. 만남
- ii. 진행
- iii. 부모상담

⑤ 종결단계

- i. 프로그램 종결
- ii. 사후관리

◎ 의사소통장애 보호자 교육

1.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합(communication)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interact)

2) 의사소통의 중요성

-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짐
- 집단의 애정과 결속력을 증진시킴
-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함

3) 의사소통의 종류

- 언어적 의사소통: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정, 몸짓, 자세, 동작

4) 의사소통의 유형

① Hawkins의 4가지 의사소통유형

차단형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유형
억제형	이성적인 면에 치우침
표출형	감정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음
친숙형	자신을 개방하는 유형

② Satir의 5가지 의사소통유형

비난형	타인 완전무시, 완고, 독선적, 지배적, 흑백논리/이분법적 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희유형	타인 욕구에 더 민감, 비굴한 자세, 희생봉사, 모든 사람의 만족을 위해 노력(타인의 평가에 불안해서)
초이성형	상황만을 중요시, 규칙 등 극단적 객관성 요구, 외면, 완고, 냉담(내면은 쉽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낌)
산만형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은 듯 행동, 논리적이지 않은 언어,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아무에게도 수용되지 못한다 생각하여 무서운 고독감과 무가치함을 느낌)
일치형	매우 진솔한 의사소통, 내용과 내면의 감정이 일치함, 매우 생동적이고 창조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2. 부모

1) “부모라는 새로운 자아는 현대사회의 자아가 그렇듯, 존재론적 안심을 필요로 하면서 성찰적으로 해석,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내포한다.” (Giddens)

2) 부모가 느끼는 모호성

① 보호대상의 다양성

-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조)
- 아동복지법(아동) 만 18세 미만
- 청소년기본법(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보호법(청소년) 만 19세 미만
- 근로기준법(연소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 결혼 전까지? 결혼 후에도?

② 부모형태의 다양성: 부모, 한부모, 조부모, 대리부모 등

③ 급격한 사회변화와 적응수준(정보의 다양성)

④ 부모의 역할: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 5조)

3)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인식

바르지 못한 개념들	가져야할 새로운 개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수동적이다 - 자녀는 미숙하다 - 자녀는 미완성품이다 - 자녀는 때를 쓰는 귀찮은 존재이다 - 자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다 -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그 자신이 권리의 주체이다 - 자녀는 발달과정에 있는 존재이다 - 자녀는 잠재능력을 가진 변화 가능한 존재이다 - 자녀는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를 가진 단 하나뿐인 존재이다 - 세상에 대한 자녀의 관점이나 희망, 욕구는 부모와 다를 수 있다

4) 엄마들의 공통적인 마음

-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
- 불안한 마음(외적인 부분의 의사소통에 그칠 뿐)
- 자녀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음(부모의 기준으로 생각)
-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치게 민감
- 무조건 엄마 탓(자신의 죄값)
- 좋은 엄마, 능력 있는 엄마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음(외부 평가에 민감)
- 자신의 자녀와는 어린 시절 엄마와 겪었던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
- 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기에 아이가 저럴까
- 다른 사람은 다 잘들 하는데 나는

- 나 아니면 아이 둘 중에 하나는 실패작이야
- 더 안아주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너무 관대한가? 엄격한가?
- 왜 나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까?

3. 부모교육

1) 부모의 네 가지 유형

유형	특징	왜
독재형	자녀보다 자신에게 집중, 과도한 통제력 발휘, 순종/복종 요구	어린 시절 무력감을 경험했을 수도 있음
무관심형	소통하는 법을 모름,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음, 실제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함, 관심을 원하는 자녀에게 불편함을 느낌	스스로 사랑 받아 본 적이 없어 소통방법이나 보살피는 법을 알지 못함
과잉보호형	지나친 관여와 집착으로 자녀에게 불안감을 줌, 개인적 욕구에 죄책감을 느끼고 엄마로서 존중은 불편하며 권력은 자녀에게 있다고 봄, 지나치게 헌신함	자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 함
복합형	아이에게 사랑대신 고통을 줌, 너그럽다가 어느 순간 적대적이거나 냉담하게 바뀌는 유형, 자녀는 엄청난 혼란을 느낌	불안정한 애착이 생김

- ▶ 4가지 유형의 부모는 ‘나쁜 습성’을 지녔을 뿐이다 나쁜 부모나 나쁜 사람은 아니다.
- ▶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4가지 유형의 자녀는 상처받는 것, 무시 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됨.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반복하게 됨)
- ▶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 일관성(엄격함) 그리고 숙달과 독립을 위한 격려 세 가지를 요구한다.

2) 간직해야 할 부모들의 마음가짐

- ① 내가 존재하는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밝아진다는 걸 알자.
- ② 내가 엄마임을 인정하자.
 - 아무도 내 일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 엄마가 되는 순간 세상은 극적으로 변한다.
- ③ 늘 공부하고, 새롭게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자.
 - 거짓으로 훌륭한 부모인척 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④ 늘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것 같지만 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열려있는 쪽문을 보자.

- ⑤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말자.(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 정신이 건강하다는 증거)

◎ 결론

상담 시 부모와의 상담이 꽤 어려운 재활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개별 및 그룹 언어재활시 재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상담이다. 또, 부모상담시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재활에서도 더욱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아동의 특성에 맞게 치료적 접근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사소통 장애 상담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하는 교육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교육연수를 통해 부모와의 상담 시 부모와의 신뢰감, 형성감을 쌓을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하며,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교육 및 치료적 접근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육연수에서 습득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차후 부모에게 신뢰감을 주며, 아동특성들에 맞는 교육 및 치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교육 · 연수보고서 18-05

- 장애등급제 폐지 연구 최종보고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구조의 재정립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8. 11. 2(금)	
장 소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대회의실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직업지원팀, 기획홍보팀
	명 단	임현주, 이주미, 고광원
	인 원	3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 11. 2(금) / 14:00 ~ 18:00
	시 간	4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등급제 폐지 연구 최종보고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구조의 재정립

I. 장애관련 환경의 변화

1. 장애인복지 제도·서비스의 변화

1) 1980년대

- 장애인복지관 개관 : 의료모델, 종합모델, 무한역할모델
- 장애인복지법 제정
- 장애인등록제 실시

2) 1990년대

-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 소규모 지역사회 시설 도입
- 장애범주 확대

3) 2000년대

- 장애인 인프라 개편 : 장애인활동보조 시범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4) 2010년대

- 장애인복지관 : 사회모델, 특성화모델, 유한역할모델
- 드림스타트 사업 : 공공 전달체계 개편, 위기가구 사례관리, 희망복지
- 장애인 연금제도 실시
-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 시행
- 발달장애인법 시행
- 동복지 허브화 시범사업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진흥원, 커뮤니티케어
- 장애등급제 폐지

2. 장애 관련 제도 변화의 의미

1) 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

- 획일적 접근에서 개인중심 접근
- 인적탈출과 시설탈색(혁신)

2) 커뮤니티 케어

- 지역서비스 강화와 지역 참여 촉진
- community : in, by, de-central
- care : 치료, 돌봄, 복지서비스

3) 사회서비스원

- 직접운영 / 직접고용
- 공공센터 운영
- 기관지원 / 관리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읍/면/동)

- 공공사례관리 강화
- 민관협력 강화
- 주민자치의 강화

3.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제

1) 공공전달체계에서의 위상

- 존재감과 주도성의 확보

2) 유연한 운영체계를 통한 유연한 서비스

- 신세대 방식의 신세대 서비스(창의성,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3) 서비스 관계에서의 상호존중, 협동생산의 문화

- 서비스 절차에서 협동생산 실현, 기록문화의 혁신(자기정보 열람, 평등한 기록)

4) 지역사회 참여 촉진

- CBSS, 시민옹호, small spark

II. 장애인복지관의 과제

1. 인권과 권익옹호

1) 원칙과 방향

- 장애인 인권 구현
- 인권보장의 구성요소 4가지
 - Entitlement : 권리의 실체적 선언
 - Enjoyment : 지역사회 가동자원 향유
 - Empowerment : 자력화
 - Embracement : 포용

2) 실천전략 및 과제

- 권익옹호 서비스 강화
-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사회 지원책 수행 및 향유
- 이용자 자기권리를 찾도록 돕는 것
- 지속적인 지역사회 변화 활동 참여

2. 자립생활과 사회모델 : 개별화와 상호의존

1) 원칙과 방향

- 자기결정과 선택 강조
- 주도적인 참여보장 : Dependence(보호) → independence(자립) → interdependence(상호의존)

2) 실천전략 및 과제

- 개별적 지원기반 강화
- 상호의존의 조직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결, 정보제공

3. 유연화 : 사람중심, 자기주도지원, 이용자 중심

1) 원칙과 방향

- 제도중심에서 사람중심
- 이용자 중심의 위계 : 조종단계 → 치료적 단계 → 정보제공 단계 → 이용자 자문단계 → 이용자 계약단계 → 이용자 통제의 단계

2) 실천전략 및 과제

- 이용자와 협동생산 실현
- 이용자 참여와 평등 강조
- 자기주도, 유연한 서비스
- 상호소통 시너지 구현(coproduction)

4. 탈시설화, 커뮤니티 케어 : 지역사회 중심

1) 원칙과 방향

- 시설에서 탈시설로
- 보호에서 자립생활로

2) 실천전략 및 과제

-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 자원화
- 공동체성 회복

5.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복지관의 과제

1) 장애등급제의 의미

-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행정편의적 서비스 제공장치
- 대상자, 급여유형 및 급여량 결정
- 정부의 역할 축소
- 예산편성 장치로 작동
- 장애인의 역할 축소
- 이해당사자간 단절 현상 초래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

-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친 혁신적이며 본질적인 변화
-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실시
- 정부의 역할 확대
- 예산 추계 방식의 변화
- 장애인의 역할 강화
- 이해당사자간 단절 극복

3) 정부차원에서의 과제

- 중앙정부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적인 로드맵 구축
- 지방정부 : 현장에서 좀 더 성공적인 전달체계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복지관의 과제

- 현재까지의 역할
 - 동행상담 협조자, 사례관리 대응자, 자원 제공자, 통합사례회의 참석자
 - 관 주도의 공공사례관리에 수동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에 머무름
- 앞으로의 역할
 - 1단계 : 장애등급제 이해도모
 - 2단계 :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제정립
 - 3단계 : 맞춤형 복지팀과 협력관계 구축
 - 4단계 : 부분적 조직개편 논의
 - 5단계 : 혁신적 조직개편 논의

Ⅲ. 공통 운영 기반

1. 사회모델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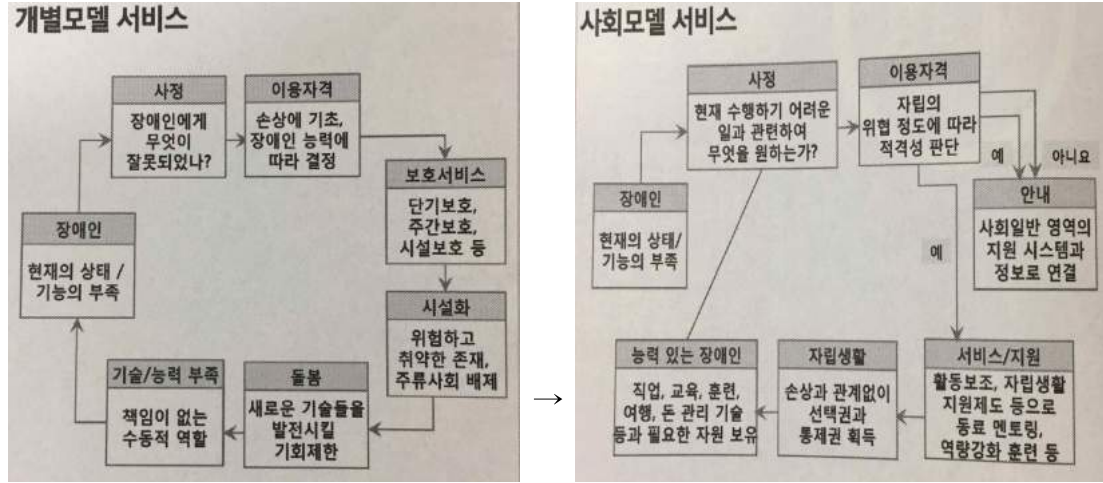
1) 개별모델 장애 정의

- 매일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중대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
- 장애인 : 위험에 처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

2) 사회모델 장애 정의

- 능력장애나 손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
-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손상으로 중대하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
- 장애인 : 사회구성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와 자격에 접근하는데 위험이 있는 사람

3) 개별모델과 사회모델의 실제



4) 사회모델로 변화의 성과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
-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기관은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는지, 서비스 제공환경을 어떻게 구조화하여야 하는지 인식이 변화됨

IV. 장애인복지관 운영 모형

1. 환경 변화

1) 지체장애

① 이용자 차원

- 고령장애인 : 높은 장애 정체감, 건강 및 소득 악화
- 중도 장애인 또는 노인장애인 : 낮은 장애 정체감, 건강악화에 따른 장애 발생, 낮은 소득수준
- 가족 또는 타기관으로부터의 소외

② 지역 환경적 차원

- 이용하기 불편한 체육, 문화, 의료 등 주변시설
- 여전히 낮은 장애인식

③ 공급자 차원

- 성과중심의 평가체계에 의한 유연성 부족
- 프로그램 중심 운영 → 개인별 맞춤 운영
- 지체장애인의 낮은 이용률

2) 발달장애

① 고령화

-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성인 대상자 증가
- 중장년층 서비스 강화 필요

② 개별화

- 이용자 개별 맞춤 지원
- 아동지원(치료, 발달 접근), 성인지원(권한 강화 접근)

③ 자립지원

- 적극적 일상생활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 서비스 공백없이 전 생애에 걸친 보호가 필요

④ 법률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4)
-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2. 필요 서비스

1) 지체장애

- 건강지원 서비스
- 적극적 문화여가 활동
- 동호회(자조모임) 지원
- 자녀 양육 지원
- 지역사회 주민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지원
- 복지관 내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
- 사회환경 개선활동 지원

2) 발달장애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중심

- 주간활동, 고용지원
- 주거권 보장, 소득보장
-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자기옹호
- 가족지원
- 법적능력 행사 보장

3) 발달장애 : 복지관 실천 중심

- 낮 활동지원 서비스
-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서비스
- 발달지원 서비스
- 가족지원 서비스
- 이용자 역량강화와 권익옹호
-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 이용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

3. 지원방향

1) 지체장애

- 이용자 주도 권한강화(Empowerment) 모형
- 지역사회 중심 지향
- 이용자 욕구 맞춤형 지원

2) 발달장애

- 성인대상(중,고령 발달장애인 중심) 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 이용자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4. 서비스 디자인 : 발달장애 & 지체장애 중심 종합복지관

1)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지원(지체장애, 발달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이용자 욕구의 긴급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획
-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유연성, 반응성 강조

② 핵심 구성요소

- 공식서비스 중심형
 - 다학제 전문가 의견검토, 기관의 고정된 format과 절차를 따르는 방식
 - 직접서비스와 공식적서비스간 연계 주력
- 자연지원망(natural support) 구축형
 - 이용자 욕구에 따른 개별적 구성
 - 이용자의 자연지원망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계획

2) 건강지원 서비스(지체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② 핵심 구성요소

- 기관 내 치료
 - 치료서비스를 관내에서 제공
- 기관 내 생활체육
 - 기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동아리 활동 지원
 - 이용자들이 자조모임 형성 후 지역사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이동서비스, 비용지원 등

3) 기능향상 지원(발달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기능향상을 통해 아동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
-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대응방법 컨설팅
- 컨설팅 과정을 통해 부모와 치료사가 창의적인 방법 개발

② 핵심 구성요소

- 표준형 치료 : 전문적 치료, 치료조언 서비스
- 지역사회 지향치료
 - 생활현장(가정, 학교, 어린이집) 방문 : 찾아가는 컨설팅 / 적극적 차원
 - 기관의 치료실을 생활환경과 유사하게 구성 / 소극적 차원
- 기능향상 컨설팅
 -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합
 - 시너지 극대화 목적
 - 장애아동의 치료를 위한 관련자간 협력

4) 문화여가 활동(지체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지원으로 의미있는 시간 활용

② 핵심 구성요소

- 소극적 문화여가 활동
 - 관람, 관광 등 문화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여가를 보냄
- 적극적 문화활동
 - 창작 등 능동적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 개별욕구와 관심, 일상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활동 구성
- 지역사회 문화허브 개발
 - 특화되고 다양한 활동중심지 개발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 문화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지원(미술, 음악, 사진, 노래방 등)
 - 복지관은 허브역할, 외부자원 연계,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원

5) 낮활동과 행동지원(발달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성인 발달장애인 낮시간을 위한 재미있고 의미있는 활동 개발
- 관심행동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긍정적 변화 지원

② 핵심 구성요소

- 기관 내 역동적 낮활동
 - 개별 욕구와 관심 일상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중심형 서비스 구성
- 지역사회 허브 개발(기관 밖 역동적 낮활동)
 - 특화되고 다양한 활동중심지 개발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
- 긍정적 행동지원
 - 바라보기, 관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분석
 - 사전적 예방과 사후전략 대응 방안 모색

6) 고용지원(발달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지역사회 고용중심 네트워크 거점기관
- 직업적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중점기관

② 핵심 구성요소

- 지역사회 중심 직업지원
 - 지역사회 고용 중심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실천
 - 서비스 및 취업연계 : 다양한 고용 형태의 취업지원, 직업훈련, 현장실습 등
- Active Support Employment 지원
 - 지원고용 서비스 중점 지원
- 작업활동 서비스
 - 이용자별(직업적 중증, 고령, 기혼, 여성장애인 등) 작업활동 지원

7) 가족지원(지체장애, 발달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돌봄인력으로서 또 다른 지원대상자인 지원자 개별지원 및 옹호
-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지원자 역량강화 집중 지원
- 자녀양육에 불편을 겪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자녀성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함(지체장애)
-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 개입(발달장애)

② 핵심 구성요소

- 가족역량 강화 지원
 - 정보제공, 상담 및 지원서비스
 - peer support 연계 및 지원, 자조집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자녀성장 지원(지체장애)
 -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연계 등 자녀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
- 가족휴식 지원
 - 지역사회 기반 돌봄 지원체계 개발
 - 돌봄 대체인력 양성 및 가족 쉽지원 프로그램

8) 권익옹호(지체장애, 발달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 지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실천(발달장애)

② 핵심 구성요소

- 전 직원의 일상적 권익옹호
 -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쉬운 글 버전의 책자 제작 등

- 개별적 문제중심의 독립적 옹호
 - 집중지원을 포함하는 전문가 옹호
- 구조적 옹호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옹호

9) CBSS(지체장애, 발달장애)

① 장애인복지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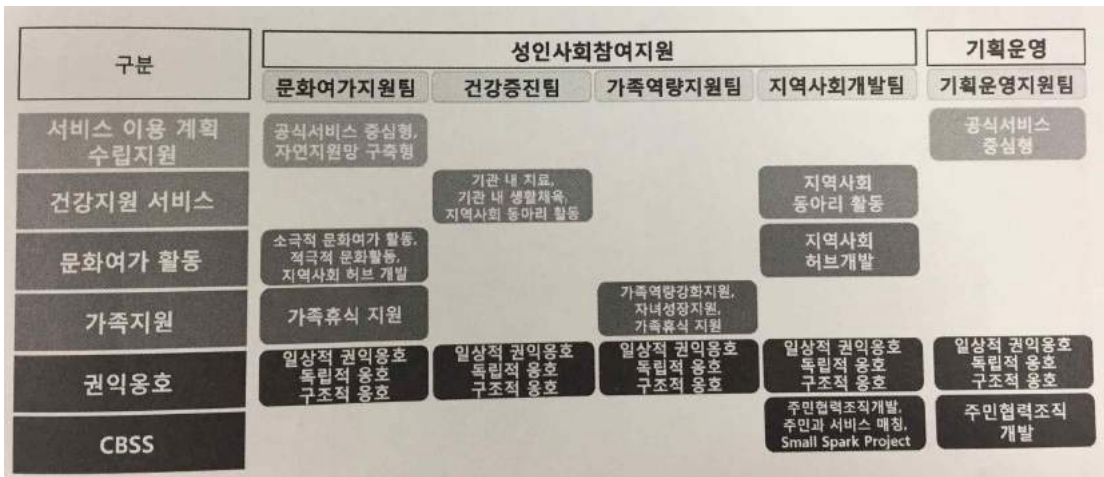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완전한 사회참여 도모

② 핵심 구성요소

- 주민협력조직 개발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치조직 결석
- 주민과 서비스 매칭(CBSS1)
 - 장애인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시민옹호인 연결, 지원(지체장애)
 - 장애인 개인의 의지, 희망, 꿈 등에 따른 서비스, 2~3명의 협력인이 역량에 맞게 지원(발달장애)
- small spark project(CBSS2)
 - 지역사회 권한강화 사업, 기금을 조성 후 지역사회 모임에서 자립활동 신청받아 지원

5. 운영모형

1) 지체장애 중심 복지관



2) 발달장애 중심 복지관

구분	아동발달지원			성인사회참여지원				기획운영지원
	아동발달 지원팀	청소년 전환 지원팀	가족역량 지원팀	성인능력 개발 지원팀	성인문화 여가지원팀	지역사회 개발팀	장노년(중증·중복장애) 서비스팀	기획운영 지원팀
서비스 이용 계획수립 지원	자연지원팀 구축형		공식서비스 중심지원팀, 자연지원팀 구축형	자연지원팀 구축형	공식서비스 중심지원팀, 자연지원팀 구축형	자연지원팀 구축형	자연지원팀 구축형	공식서비스 중심형
기능향상지원	표준형, 지역사회지향, 통합컨설팅	표준형, 지역사회지향, 통합컨설팅						
낮 활동과 행동지원				기관내 낮활동, 지역 허브개발, 긍정적행동지원	기관내 낮활동, 지역 허브개발, 긍정적행동지원	지역사회허브 개발, 긍정적 행동지원	지역사회허브 개발, 긍정적 행동지원	
고용지원		지역사회 직업지원, ASE 지원		지역직업지원, ASE 지원, 작업활동		지역사회 직업지원	지역사회 직업지원	작업활동 서비스
가족지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휴식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휴식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휴식지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휴식지원	
권익옹호	일상적 옹호	일상적 옹호	일상적 옹호	일상적 옹호, 구조적 옹호	일상적 옹호, 구조적 옹호	일상적 옹호, 구조적 옹호	일상적 옹호, 구조적 옹호	일상적 옹호
CBSS	주민과 서비스 매칭, SSP	주민과 서비스 매칭, SSP	주민과 서비스 매칭, SSP	주민과 서비스 매칭, SSP	주민과 서비스 매칭, SSP	주민협력조직 개발, 서비스 매칭, SSP	주민과 서비스 매칭, SSP	주민협력 조직개발

V. 결론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도입이 예고되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국가인프라가 변화되고 있다. 기존 개별모델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들에 맞추기를 요구하던 장애인복지관의 시스템은 장애인을 격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의 환경변화는 개인의 욕구와 지역사회 기반확충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큰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회 참석을 통해 향후 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복지관이 준비해야 할 부분 또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보고회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중심 복지관의 역할이나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본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토론회에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선행하고 복지관의 재정립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면 다른 유형의 복지관들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 쉬웠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장애인을 등급제로 나누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 뿐이었으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후 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제공 시스템 정착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생활기반 확장과 같이 관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관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전 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주 최		노틀담복지관
기 간		2018. 07. 20
장 소		노틀담복지관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기획홍보팀
	명 단	김효중, 박은영, 고광원
	인 원	3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 07. 20
	시 간	총 4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도전 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1.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도전 행동 이해

1) 자폐증

- ①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
- ② 제한된 흥미와 반복적인 행동
- ③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 ④ 사회적 소통 능력의 결여
- ⑤ 지금까지 ASD 연구가 실시된 모든 곳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높음

2) 자폐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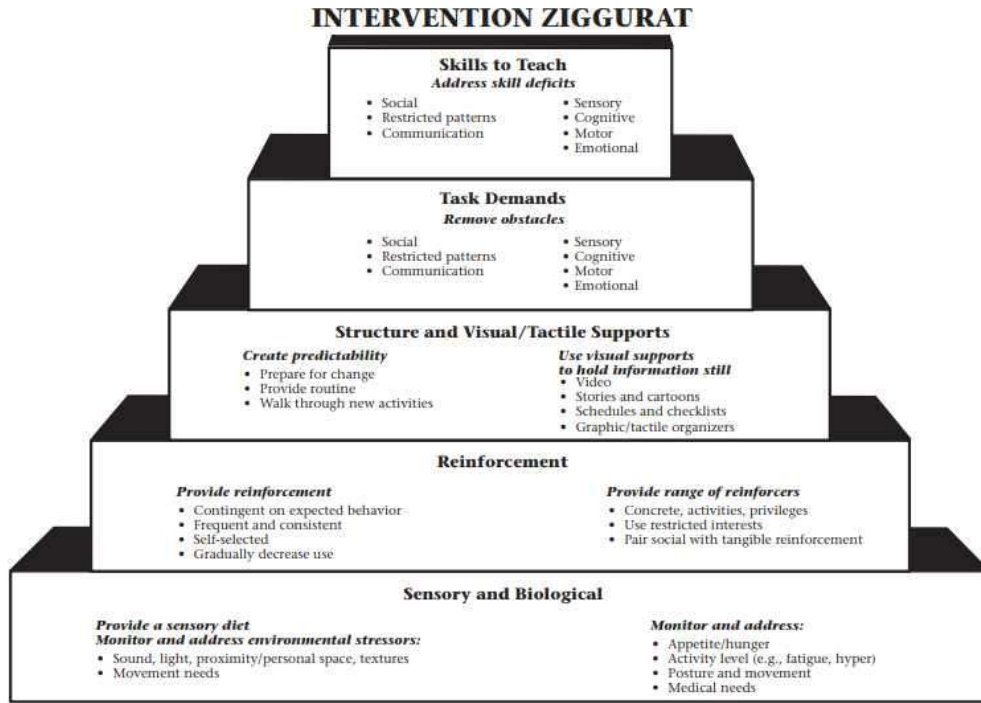
- ① 같은 자폐아라도 어떤 영역(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반복적 행동)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증상과 정도가 모두 다름
- ②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ASD를 가진 아동이 수학이나 음악, 미술, 읽기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흔히 있음.

3) TEACCH

- ① 1960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를 중심으로 임상, 연구, 트레이닝을 함께 하는 TEACCH Autism Program 이 설립됨
- ② 학령기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
- ③ 구조화된 환경, 개별스케줄, 활동 스케줄,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교구와 활동

4)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Framework)

- ① SCERTS 모델 : 각 영역의 평가(Assessment)를 통해서 타겟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 함
 - 사회성 언어(social communication)
 - 감정조절(emotional regulation)
 - 교류지원(transactional support)
- ② Ziggurat 모델 : 캡스(CAPS)를 바탕으로 개인의 프로필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안



From Aspy, R., & Grossman, B. G. (2011). *The Ziggurat Model*. Shawnee Mission, KS: AAPC Publishing; www.aapcpublishing.net; used with permission.

5) National Standards Project(국가표준 프로젝트)

- ① 광범위한 중재와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② 중재 및 치료법이 타겟으로 하는 대상(연령)과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행동을 정리함.
- ③ 1차연구
 - 2005~2009 년간 실시된 대대적인 프로젝트
 - 학령기 자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법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논문과 연구를 대상으로 함
- ④ 2차연구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논문과 연구를 대상으로 함. 그 결과는 2015년에 발표됨
 - 22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과 연구도 포함.

2. 도전행동과 중재사례(CASE STUDY)

1) 중재의 원리

- ① 행동의 원인(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재의 시작
- ② 대체행동을 찾고 가르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

2) 도전행동 사례

- ① 허를 깨무는 행동 : 추이로 대체물 제공
- ② 본인이나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 : 행동원인을 파악하고 침을 뱉지 않을 때 긍정강화
- ③ 본인이나 상대의 몸을 부적절하게 터치하는 행동 : 주머니 손넣기, 감각활동 활성화, 철봉에 매달리기 등 대체활동 제공
- ④ 목욕을 싫어하는 행동 : 목욕 활동의 구조화(토큰 시스템)
- ⑤ 달려가서 남의 눈을 찌르거나, 얼굴을 핥키는 행동 : PECS 의사소통 훈련
- ⑥ 마스크나 장갑 등을 착용하기 꺼리는 행동 : 3초에서 5초 등 시간을 늘려서 착용
- ⑦ 소리에 민감한 행동 : 좋아하는 음악 선별하여 원할 때 언제나 듣게 하여 소음소거
- ⑧ 편식이 심한 행동 : 토큰 보드를 활용하기(야채 4개 먹으면, 좋아하는 음식 1개 제공)
- ⑨ 주의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순응이 어려운 행동 : 순응과 보상 관계를 쉽고 간단한 것부터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성립
- ⑩ 욕하며 위협하기 :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다른 이야기하고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환기 시킴
- ⑪ 물건집어 던지기 : 진정 후 본인스스로 환경정리 할 수 있도록 함.
- ⑫ 코를 심하게 파는 행동 : 모래나 퍼티 등 대체물 제공
- ⑬ 화가 나면 자신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행동 : 전조행동이 나타나면 환경을 바꿔 환기 시킴
- ⑭ 자신의 얼굴을 긁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 : 무거운 패드를 사용하여 팔을 들지 못하게 하거나 대체물 제공

3) 도전행동의 접근 Tip

- ① 기다리고, 관찰하는 것 만큼 강한 도구는 없다.
- ② 도전행동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원인(기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③ 여러 도전행동이 고조에 다를 때는 오히려 침착하게 대처하고, 반대로 무거운 도전행동을 보일 경우, 가볍게 대처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한다.
- ④ 여러가지 형태의 도전 행동을 보일 때는 가장 위험하고 위급한 3도전행동에 먼저 대면하고, 한번에 한 행동씩 접근한다.
- ⑤ 일관성과 지속성은 필수요소
- ⑥ 스텝 자신 스스로가 강화제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⑦ Be creative and make them enjoy!

3. 소감 및 제언

도전행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과 대체행동지원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도전행동의 의미와 대체행동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도전행동은 이용인 살아온 시간과 비례하여 습관화가 되고 변형되어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말이 크게 와 닿았으며, 무엇보다도 도전행동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관한 교육을 들으러 가면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어떠한 도전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도전행동을 한 번에 없애는 정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런 실무자들의 태도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도전행동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이용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도전행동의 빈도를 줄여나가고 대체행동 및 대체물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 · 연수보고서 18-07

-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 발달장애인 학습요구의 이해”



주 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기 간	2018. 10. 12 14:00-17:00	
장 소	인천YWCA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박은영, 민경화 권기현
	인 원	3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 10. 12
	시 간	3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 발달장애인 학습요구의 이해”

1.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려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 2조)

2)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전공과 및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김두영, 이윤조 외, 2017)

3)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 ①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으로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및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 마련
- ②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으로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과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및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③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으로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및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 ④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으로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과 더불어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4)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구 분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학습자	
	기관수	비율	학습자수	비율
전체	3,768개	100%	17,618,495명	100%
장애인	232개	6.2%	3,619명	0.02%

출처 : 국가평생교육통계, 특수교육실태조사(2014)

2.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

1) 기초문해교육

- ① 한글문해프로그램 : 장애성인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한글교실, 문해교실, 도전문맹,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 ② 한글 생활문해 프로그램 : 문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고급문해반, 컴퓨터 문해교육반, 한글작문교실, 한글응용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 ③ 기초자립프로그램 : 중증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 기술, 사회성기술 및 지역사회적응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학교, 신변자립학교,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등이 있다.

2) 학력보완교육

- ① 초등 학력보완 프로그램 :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으로 중입검정고시반,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 ② 중등 학력보완 프로그램 : 중, 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으로 고입검정고시반, 대입검정고시반, 수능준비반 등이 있다.
- ③ 고등 학력보완 프로그램 :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으로 학점은행제강좌,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등이 있다.

3) 직업능력향상교육

- ① 기초 직업교육 프로그램 : 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의식과 작업 태도 및 습관,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직업적응훈련, 직장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 ②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기능교육, 직종훈련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기능대회준비교육 등이 있다.
- ③ 자격인증 프로그램 :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표본 작업 기능을 익혀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점역교정사양성과정, 웃음치료사양성과정 등이 있다.

4) 문화예술교육

- ①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 레저스포츠를 포함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여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레저스포츠강좌, 생활스포츠강좌, 스포츠예술활동, 건강스포츠강좌 등이 있다.
- ②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미술공예활동, 사진교실, 문화예술관람 등이 있다.
- ③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 :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 악기교실, 합창교실, 도자기공예, 영상미디어교실 등이 있다.

5) 인문교양교육

- ① 사회재활 프로그램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심리재활, 보조기기활용교육 등이 있다.
- ② 생활소양 프로그램 :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화교육, 생활요리, 역할교육, 보건, 장애인 성교육 등이 있다.
- ③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 철학강좌 등이 있다.

6) 시민참여교육

- ① 시민의식 프로그램 : 장애인의 권리를 찾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 주권교육, 장애인기자단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 ② 시민역량 프로그램 :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등이 있다.
- ③ 시민활동 프로그램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화교실, 휠체어지킴이교육, 지역나눔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등이 있다.

3. 발달장애 유형별 학습자 특성 이해

1) 지적장애의 특성

- ① 인지발달 : 제한된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부족하며 추상적 개념 사용과 정보의 일반화에 어려움을 가지며 모방, 우방학습의 능력이 부족함.
- ② 언어발달 : 언어발달의 지연과 부족으로 인해 다른 영역의 발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조음의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음.
- ③ 사회성발달 : 사회성 발달의 지연으로 인해 신변처리기술 및 일생생활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과잉행동 및 문제행동과 더불어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음.

2) 자폐성장애의 특성

- ① 사회적 상호작용 : 눈맞춤, 얼굴표정, 신체자세,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몸짓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며 발달 수준에 맞는 또래관계 발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즐거움, 흥미, 성취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는 자발적인 시도가 부족하며, 사회적 또는 정서적으로 서로 주고 받는 상호관계가 부족함.
- ② 의사소통 : 구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체될 경우가 많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며 언어나 특이한 언어를 상동적, 반복적으로 사용함. 또한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발적인 가상놀이나 사회적 모방놀이가 어려움.
- ③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 정도나 초점이 이상하고 하나 또는 그이상의 상동적이며 한정된 흥미에 몰두하며 특유한 비실용적인 관에 박힌 일이나 의식(ritual)에 변함없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상동적이며 반복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일부에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경우가 많음.

4. 소감 및 제언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발달장애인 학습요구의 이해의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 학습요구의 이해 및 발달장애 유형별 학습 특성과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교육에 참석하면서 인천 내의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들의 관계자 및 실무자들과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이 번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018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기초과정 2차



주 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기 간	2018년 8월 21일	
장 소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
	명 단	고형식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8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I. 교육개요

1. 교육명 : 2018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2. 기 간 : 2018. 08. 21(화) 09:30~17:00
3.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II. 교육내용

1.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7.7%가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이 36.4% , 중증이 39.5%로 경증이 중증보다 차별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차별받는 이유로는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경증과 중증이 각각 28.4% , 24.6%로 가장 많았고, “시험 또는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 가 각각 18.5%, 23.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렵게 취업해도 직장 내 차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비장애인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기본급을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지급 하는 경우가 19%에 달했고 상여금,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15%로 집계됐다.

1년에 한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법정 의무 교육화다. 정부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애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방법으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자료로는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50명 미만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교육용교재,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등을 활용하면 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2. 장애인식개선 사업 실시 배경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수는 약 273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장애발생의 89.9% 이상이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게 장애인관련 정책들이 재정되고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장애인복지연구 및 정책 수립·추진 -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개정 - 1986년 국립재활원 개원 - 1987년 장애인 등록 시범사업 시작 - 1988년 제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마련 - 1989년 장애인 복지법 제정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법률제정 -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공포
2000년대	2010년대
장애인 정책의 확대 발전 - 장애인 관련 국가종합계획 의 수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장애인정범위 확대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제정	장애인식 패러다임 변화 - 매년 등록 장애인 수 증가 - 등록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발생 - 장애발생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국적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체계 구축 필요

3. 장애인식개선교육 Tip

<p>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영상 삽입</p>	
<p>공감을 이끌어 낼수 있는 장애 체험 활동</p>	
<p>한눈에 이해할수 있는 PPT자료 활용</p>	

Ⅲ. 느낀점

현재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추가하여 자료를 보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장애와 장애유형 이해, 장애발생예방 자료, 장애체험교육을 연령과 대상에 맞게 조합하여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안정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2018 비영리 미디어컨퍼런스 [ChangeON]



주 최		다음세대재단
기 간		2018. 11. 28
장 소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박성묵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 11 28
	시 간	09:30~18:00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2018 비영리 미디어컨퍼런스 ChangeON

SESSION1 #기조 #학자의시선 #초통초통

세션1은 기조 강연으로 ‘비영리 생명체의 멸종.생존.탄생’을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자연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김은미 교수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잠재력과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봤고,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생태계에서 멸종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누군가의 멸종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사회과학자의 시선 :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김은미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교수, 언론정보연구소 소장)

<p>양승동·최승호 사장, '공영방송 혁신' 주제로 대담</p> <p>“KBS 안보는데, 수신료 왜 받냐?”… ‘남부 거부’ 확산</p> <p>진화하는 미디어·범람하는 가짜 뉴스…공영방송의 해법은?</p> <p>국민 84.3%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불필요 인식</p> <p>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p> <p>KBS 수신료 7500→4000원?</p> <p>19.8% 찬성하다</p> <p>73.4% 반대하다</p>	<p>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영역</p>
	<p>사회구성원리와 미디어는 닮은 꼴</p>
<p>미디어 혁신에 올라타서 함께 공진화해야!</p>	<p>일의 본질이 재정의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개원칙의 관료적 경제와 사회 인간관계 중심의 경제 • 모두가 주인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 (차이) - 다양한 요소의 자조민적 가치를 생산 • Sharing of Culture에서 Culture of Sharing - 뒤섞임, 다양성 • 산출물보다 작업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의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지식과 신뢰 생산 - 차이/타인 동시에 자존 • 사소한 기지의 재발견 : "Small" Creativity
<p>바야흐로 우리 세상</p> <p>"애들아 비영리"</p>	<p>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을 살피는 마음 - 협력하는 마음의 틀 -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 • 우리 안에 다양성을 발견하고 양육 <p>미디어화된 세상 안에서 함께 호흡!</p>

멸종

진화의 원동력

- 이정모
- 서울시립과학관
- penguin@seoul.go.kr



자연사

自然死

自然史







하지만 생태계 자체는
꾸준히 유지된다.

ecological niche



생태적 지위

지구의 역사

신생대		
대	지질 시대	시작 연대
신생대	제4기	
	제3기	6,600만 년 전
	백악기	
중생대	4	
	3	2억 4,500만 년 전
	2	
고생대	1	
	1	5억 4,100만 년 전
	1	46억 년 전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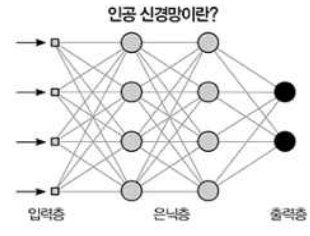
SESSION2 #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글이글

세션2에서는 기술혁신의 가장 큰 이슈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이야기 하며, 두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라운드X의 이종건 전략이사는 기술관점의 블록체인이 아닌 인간적이고 인문학적 요소의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고,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구분권 소장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의 시각이 아닌 다른 눈으로

이종건 | 그라운드X Head of Strategic Partnership

<p style="text-align: center;">블록체인, 기술의 시각이 아닌 다른 눈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카카오 그라운드 X 이종건 jerome.lee@groundx.xyz</p>	<p style="text-align: center;">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같은가요?</p> 						
<p>인터넷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술-솔리드 방식' 비교</p> <p><small>*솔리드 방식: 각인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임의의 물리적 장인 디지털 저장소</small> <small>자료: 신한카드</small></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th> <th>솔리드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p>인터넷 서비스 기능, 사용 중 생성된 데이터는 기업 중앙 서버에 저장, 관리됨</p> <p>개인 → 기업 → 인터넷 서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기업이 다수 이용자의 막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문제 발생 사전에 대한 기술, 전문 지식, 레퍼토리 기반 대한 정보유출 위험 등 발생 </td> <td> <p>물리도 못 지운다에 접근이 불가하여 데이터가 지켜져서, 도용, 유출자가 아닌 영의 자신의 무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하는 권한을 기업</p> <p>개인 → 기업 → 인터넷 서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각각 데이터를 보유, 관리하면서 데이터 집중에 의한 문제 해소 데이터 확보에 뒤처진 신규 기업도 신규 서비스 제공 가능 </td> </tr> </tbody> </table>	기술	솔리드 방식	<p>인터넷 서비스 기능, 사용 중 생성된 데이터는 기업 중앙 서버에 저장, 관리됨</p> <p>개인 → 기업 → 인터넷 서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기업이 다수 이용자의 막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문제 발생 사전에 대한 기술, 전문 지식, 레퍼토리 기반 대한 정보유출 위험 등 발생 	<p>물리도 못 지운다에 접근이 불가하여 데이터가 지켜져서, 도용, 유출자가 아닌 영의 자신의 무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하는 권한을 기업</p> <p>개인 → 기업 → 인터넷 서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각각 데이터를 보유, 관리하면서 데이터 집중에 의한 문제 해소 데이터 확보에 뒤처진 신규 기업도 신규 서비스 제공 가능 	<p>잠깐! 여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화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도, 효율등의 면에서 뛰어납니다 블록체인이 만능이라고 이야기하는것도 아닙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생적으로 비싼 기술이고 태생적으로 한계를 있습니다 Trilemma - security vs. scalability vs. decentralization (싸고 맛있는데 플레이팅이 이쁜 것?) 		
기술	솔리드 방식						
<p>인터넷 서비스 기능, 사용 중 생성된 데이터는 기업 중앙 서버에 저장, 관리됨</p> <p>개인 → 기업 → 인터넷 서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기업이 다수 이용자의 막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문제 발생 사전에 대한 기술, 전문 지식, 레퍼토리 기반 대한 정보유출 위험 등 발생 	<p>물리도 못 지운다에 접근이 불가하여 데이터가 지켜져서, 도용, 유출자가 아닌 영의 자신의 무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하는 권한을 기업</p> <p>개인 → 기업 → 인터넷 서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각각 데이터를 보유, 관리하면서 데이터 집중에 의한 문제 해소 데이터 확보에 뒤처진 신규 기업도 신규 서비스 제공 가능 						
<p>들어가기전! 호텔 예약 데이터를 xyz만 소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 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행을 살펴본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뭘 좋아했나? 그러면 뭘 좋아할건가? 나랑 비슷한 사람은 뭘 좋아하는가? 	<p>이게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긴해?</p> <table border="1"> <tr> <td>분산해서 저장 (사실함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방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알림" </td> </tr> <tr> <td>동기를 부여 (토근이코노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않으면 그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볼까? </td> </tr> <tr> <td>관외에 추종 (거버넌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같은 내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임호학적으로 해보자 </td> </tr> </table>	분산해서 저장 (사실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방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알림" 	동기를 부여 (토근이코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않으면 그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볼까? 	관외에 추종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같은 내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임호학적으로 해보자
분산해서 저장 (사실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방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알림" 						
동기를 부여 (토근이코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않으면 그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볼까? 						
관외에 추종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같은 내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임호학적으로 해보자 						
<p>블록체인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正反合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 '정'은 어떤 것이 모순적 면모를 지닌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을 부정하여 모순을 털어버린 상태를 '반'이라 한다. 하지만 '반'은 모순을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이 세상 모든 물체들은 모순적 면모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상태인 '합'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합' 또한 모순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은 다시 '정'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반합 이론이다. 	<p>정리해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주체가 되고 같이 일해서 커뮤니티와 사회를 만들어 내고 일하는데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다시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고 <p>이 정도면 사람냄새 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않을까?</p>						

<h3>1.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h3> 	 <p>2016.12.31. 장학퀴즈에 ETRI '엑스브레인(ETRI 박상규 책임연구원) 우승 장학퀴즈 상반기 하반기 우승자, 수능 만점자, 지니어스 준우승자 등 제압 2013년 개발, 컴퓨터 41대(376개 CPU), 3테라 메모리, 12만권 서적 학습</p>
  <p>브리태니카 백과사전</p>	<h3>미래 지식의 변화</h3> <p>백과사전과 위키미디어 브리태니카: 2012년 마지막 종이사전 인쇄, 32권 12만개 항목 위키미디어: 2015년 현재 490만개 항목, 무료, <네이처> 2005년 12월 정확도 측정 두 사전의 42개 항목 오류 비교결과, 4개씩 동일 => 진짜 변화는 논문 이후</p> <p>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종언 15C 인쇄술 등장으로, 구술문화>문자문화 르네상스, 종교개혁, 절대왕정, 시민사회, 산업혁명, 과학의 시대 개막</p> <p>기존의 지식 분류체계: 멜빌 듀이의 10진 도서분류법 이후의 '추천 검색' => 구글의 '페이지 랭크'</p>
<h3>지식의 유효 기간</h3> <p>과거 우주에 관한 지식의 유효기간</p> <p>-새뮤얼 아브스만 <지식의 반감기> : 모든 지식은 유효기간을 지닌 '가변적 지식' -무어의 법칙 Moore's Law: 반도체 용량 18개월마다 2배로 -멧칼프의 법칙 Metcalfe's law: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사용자 숫자의 제곱</p> <p>→ 디지털 세상은 지식생산량 폭증, 빠른 변화속도 → 지식의 유효기간(반감기) 단축 → (과거에 없던) 평생 학습사회</p>	<h3>A.I.와 Robot이 던지는 과제</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 알고리즘 대신, random한 선택 허용 여부 - 믿음(조작자, 관리자, 제조사, 설계자) - 알고리즘을 누가 결정하게 할 것인가 - 블랙박스 속 알고리즘의 비밀을 벗길 수 있는가 - 설계자(시장), 조력자(개인), 국회의원(단체가 힘), 글로벌연대(초국경),... - 초기값 설정(다들 쓰는 선택)과 사용자 선택권 - 어느 영역을 디폴트고, 어느 영역을 선택범위로 할 것인가 - 사원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도 설정할 것인가 - 디폴트 설정없이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 개인적 용도와 국가 차원의 전략무기에 '합의와 규제' 가능할까? - 치명적 사용무기시스템(LAWS), 드론, 섀스드봇,
<h3>미래 지식의 변화</h3> <p>백과사전과 위키미디어 브리태니카: 2012년 마지막 종이사전 인쇄, 32권 12만개 항목 위키미디어: 2015년 현재 490만개 항목, 무료, <네이처> 2005년 12월 정확도 측정 두 사전의 42개 항목 오류 비교결과, 4개씩 동일 => 진짜 변화는 논문 이후</p> <p>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종언 15C 인쇄술 등장으로, 구술문화>문자문화 르네상스, 종교개혁, 절대왕정, 시민사회, 산업혁명, 과학의 시대 개막</p> <p>기존의 지식 분류체계: 멜빌 듀이의 10진 도서분류법 이후의 '추천 검색' => 구글의 '페이지 랭크'</p>	<p>Deep Neural Network의 구조</p>  <p>인공 신경망이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p>

SESSION3 #비영리 #스타트업 #조직문화 #으쌔으쌔

세션3은 새로운 비영리 생명체의 탄생을 기대하며 스타트업의 조직문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애자일 컨설팅 김창준 대표는 심리학과 경영학 등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시작에 능숙하기 위한 기술과 태도를 말했고,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 상대적으로 변한 보수적인 비영리 섹터에서 스타트업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였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술

김창준 | 애자일 컨설팅 대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루틴전문성 - 익숙한 일을 잘하는 것

적응성전문성 - 새로운 일을 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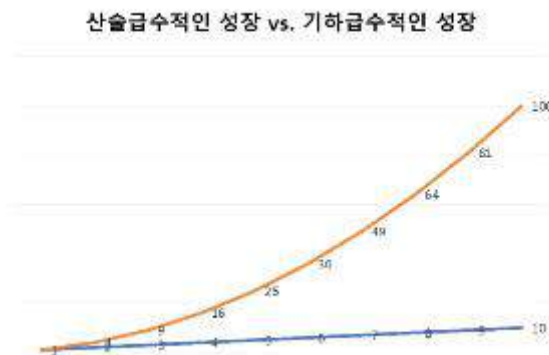
ai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루틴전문성의 영역이 축소되고 적응성전문성이 확대

연쇄창업가 및 변화하는 중간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칙

1. 손안의 새 :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활용하라
2. 조각보법칙 : 경쟁상대를 찾기보다는 협력자(파트너)를 찾아라
3. 감내할 수 있는 손실 : 변화를 선택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
4. 레모네이드의 원칙 : 실패를 경험으로 활용하라(상황인식)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재탄생하다

양경준 | KRYPTON FOUNDER & CEO



현대사회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성장에 따른 발전을 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이 필요한 이유. 현대는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는 시대로, 1.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2.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
- 혁신의 방법
 1.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
 2. 린프로세스
-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 의 반복



스타트업의 장점 : 실패를 인정하고 학습하는 문화

비영리는 과거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비영리는 인간의 본질인 동시에 사회혁신의 주체였다.

- 사회혁신이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시대는 끝, 오직 혁신의 주체인가 아닌가가 중요함.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는 사회혁신의 주체를 다변화시키고 있으므로, 비영리는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 다시 혁신의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변화가 필요함.

SESSION4 #사람이야기 #새로운 도전 #응원할게

마지막 세션4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희망토의 강영수 이장은 청년농부의 삶을, 유튜브 생각 많은 둘째언니의 운영자 장혜영은 중증발달장애 동생과 함께하는 일상을, 걸스로봇 이진주 대표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디지털 저널리스트 채반석은 언론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도시청년들에게 농장주를 추천합니다.

강영수 | 농업회사법인 희망토(주) 이장



내 한 몸도 살기 힘든 세상을 돌파하는 방법

장혜영 | '어른이 되면' 프로젝트 기획자, 유튜브 '생각많은 둘째 언니' 운영자



공존의 예의, 멸종하지 않고 함께 살아남기

이진주 | 길스로봇 대표, 제주과학문화공간 별꽃 대표



타협하는 말 걸기

채반석 | MBC 14F 프리랜서/디지털 저널리스트



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전주라는 먼 곳까지 방문하였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강연에 집중하여 비영리기관의 변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바라보는 비영리에 대해 접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과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해주었고, 나 역시 변화를 위한 노력이 끈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오픈전시회를 통해 다른 비영리기관의 홍보물을 접하고 행사진행전반에 대한 경험으로 본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사업에 대한 조언과 행사진행 시 검토 및 적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2018년도 상반기 인천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교육



주 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기 간	2018년 3월 22일 (목)14:00~18:00	
장 소	천주교인천교구사회복지센터 2층 세미나실(인천 중구 답동로23)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이안나
	인 원	총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1일
	시 간	총4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2018년도 상반기 인천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교육

1교시

1. 법인의 이해

1) 법인 소개

구분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마크		
소속	비영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인천시청)
소재지	인천 동구 박문로 1(송림동)	인천 중구 답동로 23 사회복지센터(경동)
설립일자	1962. 11. 14.	2013. 7. 18.
대표	이사장 정신철 (인천교구장)	대표이사 정윤화 (총대리 신부)
이사	김현대, 김현수, 박요환, 오용호	이상희, 안규태, 한의열, 이용권, 박성수, 전경희, 정기희
감사	이학노, 정윤화	성제현, 황세현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이전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이후인 경우 사회복지법인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법인을 쉽게 알 수 있음.

2) 법인 조직 구성

(1)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2)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3) 미션&비전&전략

(1) MISSION(미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하느님 사랑을 증거 한다.

(2) VISION(비전)

- ① 참된 영성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회
- ②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본당 사회복지
- ③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시설 사회복지

(3) STRATEGY(전략)

① 시설

- 본당과 시설간의 결연을 통한 지역복지의 실현
- 가입시설 종사자의 영성교육과 지원을 통한 교구 소속감 고취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확대 및 강화

② 본당

-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실천의지 고취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본당 사회복지의 체계적인 조직 확립
- 본당 사회복지분과 지구모임을 통한 슈퍼비전 강화

③ 후원·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복지의 인지도 강화
- 시설과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홍보 업무의 체계화
- 사회복지회 고유의 후원사업 개발

2교시

1.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

1) 가톨릭 사회복지를 '왜' 알아야 할까?

- (1)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2) 개인적인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이 일치되고 조화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며 발전하고 개인도 성장할 수 있음
- (3) 따라서 소속된 시설의 직원으로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소속된 시설의 운영방침, 미션과 비전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일치해야 함.
- (4) 가톨릭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함
- (5)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하는 기관의 기본토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2) 가톨릭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본 사상

“가톨릭 신앙과 가치가 우리나라 동기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가톨릭적 인간 이해와 사회관을 바탕으로 관련 인문·사회과학과 전문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 인간완성에 장애가 되는 개인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

구별을 위한 범주	가톨릭교회 사랑실천	가톨릭교회 사회복지
시기	교회 창립 ~ 현재	사회복지체계 독립 (19세기 후반) ~ 현재
중점 생산수단	보편 : 수렵, 농경, 산업(정보)	산업(정보)사회
지배적 사회관계	보편적: 가족, 씨·부족, 대중사회	대중사회
정치 제도적 전제조건	무관함	현대적 국가체계 - 사회복지 및 복지 법령/제도
관련 사회체계	경제, 정치, 교육, 보건의료, 정치, 사회복지 등	사회복지
중심 특성	종교적	종교적+사회적

3)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1) 정체성[고유성] -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 ① 개인적 정체성 -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특질, 신념, 기술 등)로 구성되는 ‘자기개념’
- ② 사회적(집단적) 정체성 - 사회집단과 범주의 구성원들이 공유 하는 ‘자기개념’

(2)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조작적 정의

- ①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의 이념에 동의하여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복지 단체, 시설, 기관에 소속되고, 자신과 이 집단을 동일시하여 다른 집단과의 비교과정에서 고유성, 독특성, 우월성을 느껴 자기-가치의 느낌을 강화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 ②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단체, 기관, 시설의 운영주체가 집단의 구성원들과 가톨릭교회의 이념을 공유하고, 집합적으로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또는 이를 통해 얻어진 일체감, 가시적 이미지

(3)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모색 방향

- ① 다양한 역할 주체들이 자유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가톨릭 사회복지가 새로운 상황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
- ② 미시적 영역에서 고유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앞서의 차별화 전략, 강점 강화 전략, 그리고 약점 보완 전략 모두를 적용

- ③ 종교성/영성을 강화하며, 가톨릭 종교 강요 혹은 개종권유의 방향이 아닌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신의 내적동기를 신앙에서 이끌어내는 것
- ④ 우리가 강점을 보여 왔던 영역, 가치, 또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의 영역을 점차 확대

(4) 가톨릭 사회복지 특성 및 강점의 고유성 8가지

- ① 재정의 투명성 - 회계 관리부분의 정직한 이미지 각인
- ② 헌신성 - 신원을 막론하고 헌신적으로 투신하는 사랑의 모범
- ③ 추가 자원동원 능력 - 인적자원 동원(자원봉사자), 물적자원 동원(별도의 후원회 조직)
- ④ 신속성과 직접성 -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강점, 가장 밀접한 일차적인 직접성 높음.
- ⑤ 조직적 통일성 - 교구 및 전국단위 지원체계 통일성 기하기 용이함.
- ⑥ 풍부한 영성적 자원 보유 -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 풍부하게 보유
- ⑦ 국제적 네트워크 - 종교를 통한 정보의 통로역할
- ⑧ 종교에 대하여 포괄주의적 접근태도 - 교회의 영향력 확장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에 권력화에 대한 이야기 없음.

4)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실현의 구성적 요소

(교회의 사회교리 주요 원리를 중심으로)

(1) 가톨릭 사회교리

- ① 실천의 궁극적이고 확실한 근거로 삼게 되는 거룩한 전통 가운데 현대에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가르침
- ②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옴
- ③ 그 원천을 성서, 교회의 교부들과 대 신학자들의 가르침, 교도권과 특히 최근 교황들의 교도권에 두고 있는 교의적 방향 설정들 및 활동 기준 총체

(2) 가톨릭 사회복지의 고유성과 실천 방향 제시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원리 3가지”

① 공동선

-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무도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것
-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화의 올바른 분배와 이웃 사랑의 정신이 필수적이며, 사회자체 존재하는 참된 이유
-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음

② 연대성

-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

-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요구
- 아무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도와서 성장하고자 하는 지향을 통해 분열을 넘어 일치를 추구

③ 보조성

-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

※ 이 모든 원리들은 사회교리 197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이라는 가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5)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실현의 구성적 요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을 중심으로 8가지)

- (1) 사랑실천,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은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다.
- (2)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한다.
- (3)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과 마음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 (4) 당파적인 전략과 원칙에서 벗어나 온전히 헌신하여 직접 선행을 실천한다.
- (5) 사랑을 개종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 (6) 교계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 (7) 투명한 운영과 충실한 사랑의 증언으로 국가기관과 다른 공동체들과 협력한다.
- (8) 보편적 사랑 실천이고, 영적인 돌봄까지 포함한다.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 공개 Conference(13차)



주 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기 간	2018. 05. 28. (월) / 1일	
장 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변새봄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 05. 28. (월)
	시 간	14:30 ~ 17:30 (3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공개 Conference(13차)

1. 주요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 이기연 교수(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심정원 관장(성산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 1.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개요: 77세/남/시각·청각 1급
- 문제: 배우자, 자녀들로부터의 가정학대 및 재산 분할 피해
- 개입계획: 권익옹호(법률), 기초생활(식사, 빨래), 가족상담
- 공개토의
 - :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전체 개입기관의 서비스 조정 방안
 - : 노인 학대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사진 촬영)
 - :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
 - : C't의 각 기관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향, 이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예상
 - : 과거력(학대 발생 시점)을 통한 가족 구성원들의 협의점 찾기
- 슈퍼비전
 - : 학대인가? 학대라면, 접수 후 즉시 초기면접 진행해야했음. '시급성' 중요
 - : 기관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음. 기관의 재신고로 학대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함.
 - : C't의 안전(장애인이 망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것 보다 실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 많음.) 확보를 위한 옹호적인 자세 기본이 되어야 함.

(2) 사례 2. 중곡종합사회복지관

- 개요: 남/18세/수급/조손가정
- 문제: 부(17년 사망), 형으로부터 학대 피해, 반복적 자퇴와 전원 및 입원
- 개입계획: C't의 자립 및 안정을 목표로 함.
- 공개토의
 - : 사례관리자 역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C't의 삶이 롤러코스터라면 사례관리자가 같이 탑승해있는 것 아닌가?
 - :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사이에도 궁합이 있음.
 - : 사례관리자가 엄마/해결사의 역할을 하면서 C't에게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 슈퍼비전
 - : 청소년은 자신의 환경을 선택할 수 없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기본

인식 필요함. 아동시기 보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더 많아짐.

: 사례관리자의 트라우마(C't의 반복적 자해 목격)를 관리할 필요성 있음.

: 사례계획은 대상자와 '시간'을 정하고 시간 안에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순서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일 수 있음.

: 개입의 밀도를 낮추되, 정서적인 끈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인 사례관리의 일환임.

: C't를 지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 여부 고려한 하향된 기대수준 설정 필요함. : C't가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한 조모, 형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함.

2. 참여 소감

- 여러 복지기관의 사례관리자가 사례발표 및 공개토의에 적극 참여하며 다양한 관점의 질문, 동료 수퍼비전이 가능하였음. 사례발표자에 대한 조언, 격려를 통하여 본관의 사례관리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었음.
- C't의 가족을 위한 장애 이해 정보 제공을 통하여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얻는 것, 사례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상자와 '시간', '목표'를 각각 논의하는 것 등은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습득하고자 함. 또한, 사례관리의 기본개념 및 원칙에 대한 이해가 확고해야 함을 재인식 할 수 있었음.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카리타스인



주 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기 간	2018년 9월 5일 ~ 9월 7일	
장 소	속리산유스타운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유명현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일
	시 간	총 12시간 30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제8회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카리타스인’

I. 교육개요

1. 교육명 : 제8회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2. 기 간 : 2018년 9월 5일(수) ~ 9월 7일(금)
3.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4. 일 정

날 짜	내 용	비 고
9월 5일(수) 배움	등록, 접수	
	특강 1 ‘그리스도론에 입각한 카리타스 정신’	정성환 신부
	사람책 도서관	
9월 6일(목) 고민&공유	특강 2 ‘우리는 언제 결심하는가?’	고정욱 작가
	특강 3 ‘Open Space(오픈스페이스)’	강성숙 수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카리타스 카페	
9월 7일(금) 다짐	Open Space 결과발표	강성숙 수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점심식사 및 해산	

5. 주 관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II. 교육내용

특강. 오픈 스페이스
 강사: 강성숙 수녀(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 오픈스페이스 기술

- 오픈 스페이스기술은 북미의 조직 전문가인 해리슨 오웬이 커피 브레이크에서 영감을 얻어 통과 격식을 벗어난 자유로움과 훌륭한 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회의 방법으로 창안한 독창적 집단 의사결정방법입니다.

- 1985년 해리슨 오웬(Harrison Owen)이 85명의 조직 개발 분야의 선구자들과 이 회의 기술을 실험한 이후 이 기술은 23년 동안 수천명의 오픈 스페이스 컨설턴트들에 의해 현재 134개국 이상에 확산되어 10만번 이상의 오픈 스페이스가 열렸습니다.
- 이 광범위한 성공적 임상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픈 스페이스 (또는 오픈 스페이스 기술)가 자연의 근원적 힘인 자기조직화 기전을 발동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확산되는, 일반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오픈 스페이스의 비밀입니다.
- 오픈 스페이스는, 조직(시스템)의 근원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인 자기 조직화가 쉽게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관리자(조직의 최고 책임자 포함)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조직 통제에 엄청난 노력(자원, 시간, 정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오픈 스페이스 미팅(회의, 포럼)이 그 첫 걸음입니다.
- 언제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가?
 - 대립으로 인해 변화할 기회가 지연되고 있을 때
 - 상황이 복잡할 때
 - 다양성의 수준이 높을 때
 -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긴급한 상황
 -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필요할 때
 - 미리 마음속에 품에 둔 결과가 없을 때
- 오픈 스페이스의 가능한 결과
 - 열정, 의지 및 공동 리더십 강화
 - 참석자들이 결과(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수용
 - 합당할 경우 실천(행동)계획과 실천 권장 사항이 자연스럽게 도출됨
 - 진행하면서 모든 의사 진행 기록이 이루어짐

2. 오픈스페이스 주요소

- 열정과 책임 : 열정이 일을 시작하게 하고, 책임은 시작한 일을 끝내게 한다.
- 4가지원칙
 - 가. 오는 사람이 맞는 사람들이다.(Whoever comes is the people)
 -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대화에 가장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전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 나.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Whatever happens is the only thing that could've)
 - 우리가 모인 이 시간과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며,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 수준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다. 시작한 시간이 맞는 시간이다.(Whenever is starts is the right time)

- 창조성은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최선의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창조성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대화하고 토론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라. 끝나면 끝난 것이다.(When it's over, it's over)

- 대화와 토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났는가?”라고 물어라. 끝났으면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다음 것으로 가라. 끝나지 않았다면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3. 오픈스페이스 진행방법

- 주제 선정 :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주제나 질문을 선정한다. 되도록 높은 목적에 맞춰야 하며 토론을 긍정적으로 이끌 최대한 포괄적인 주제를 설정한다.
- 초대 : 모든 이해당사자 또는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초청장(초청 문구)에 모임의 주제, 날짜, 장소, 시간을 포함시킨다.

- 오픈스페이스 준비

가. 원형배열 :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의자를 하나의 원 또는 여러 개의 동심원 형태로 배열하고 중앙에 공간을 비워 둔다. 원의 중심에는 종기와 펜을 놓는다.

나. 의제를 붙일 빈 벽을 정해서 ‘의제’라고 표시한다.(꼭 의제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 의제의 벽에는 장소와 시간대를 표시한다. (선택사항 : 벽 가까이에는 ‘뉴스의 벽’을 준비하고 그 주변에 컴퓨터와 테이블을 배치한다. 의제 벽과 뉴스 벽 근처에 사람들이 종이를 붙일 수 있도록 포스트잇이나 플립차트, 그리고 테이프, 사인펜 등을 비치한다. / 오랜 시간 동안 OST를 진행할 때 유용하다.)

다. 모임 시작 : 진행자가 주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소집단이 모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절차, 자료 비치 장소,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한 장소 오픈스페이스의 원칙 등을 설명한다. 그런 후 진행자는 참가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집단에게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장터열기라고 한다.

라. 장터 열기 :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집단의 중심으로 나와 종이에 자신의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쓰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의제 벽에 자신의 주제를 내놓는다. 한 주제 당 한 장이며 시간대로 충분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주제(상품)을 내놓아도 좋다. 주제를 내놓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반드시 회의 보고서(의사록, 정리문)를 뉴스 벽에 붙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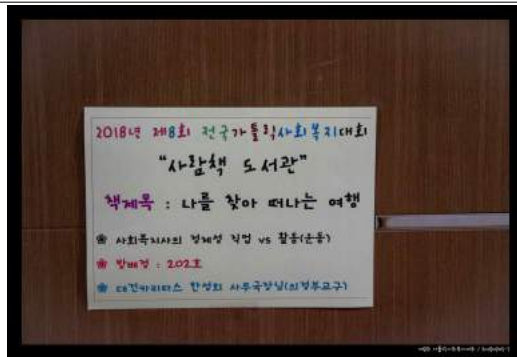
마. 주제선택 : 모든 주제(상품)가 다 나왔으면 진행자는 사람들이 의제의 벽 앞으로 나와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게 한다. 한 개 이상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겹치는 주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제 모임 사이를 오가며 참석할 수도 있다.

- 바. 토론진행 : 각자 자신이 선택한 주제의 토론에 참여한다. 진행자는 전체 토론 공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토론이 끝난 후 보고할 사람들은 토론 보고서를 벽에 붙인다.)
- 사. 발표 : 주제별 토론을 마무리한 후 다시 모여 대화의 형태로 회고의 시간을 가진다. 각 주제별 논의된 사항을 발표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발표하는 것을 그냥 듣게 한다.
- 아. 후속작업 : 각 주제별 구체적인 실적목표를 논의해서 실천방안을 발표한다.

II. 교육 사진



특강1. 그리스도론에 입각한 카리타스 정신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특강2. 우리는 언제 결심하는가?



특강2. 우리는 언제 결심하는가?



특강3. 오픈스페이스(소개)



특강3. 오픈스페이스(주제선정)



특강3. 오픈스페이스(주제별토의)



특강3. 오픈스페이스(발표)



단체사진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주 최	남동구청	
기 간	2018.11.13.(화)	
장 소	남동복지관 2층 1교육실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전기훈, 이안나, 김효중
	인 원	총 3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11.13.(화)
	시 간	15:00~18:00(총 3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I. 교육개요

1. 교육명 :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 기 간 : 2018.11.13.(화)
3. 장 소 : 남동복지관

II. 교육내용

1. 사례관리 기본개념

- 탈시설화, 대인복지서비스 비용효과,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와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인식증가에 따른 사례관리가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서비스를 분상하여 복합적 욕구를 지닌 인구의 증가가 필요함.

1) 사례관리의 목적

- 서비스이용자 생활기술, 문제해결능력 향상
- 서비스 이용자 환경체계로서 공식·비공식 지원역량강화
- 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2) 사례관리 실천원칙

- 보호의 연속성
- 전체로서의 인간
- 통합적 접근
- 평가, 옹호
- 질적 보호, 역량가화
-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3) 강점관점

- 병리적 관점 (문제, 병리, 과거) ↔ 강점관점(도전·전환점·성장의 기회, 미래)

(1) 개인강점, 환경강점

- 개인강점 : 희망, 조직화, 인내, 자신감, 유능성/역량
- 환경강점 : 사회적 관계, 기회, 자원

(2) 강점관점이란

-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관 존중
- 모든 사람은 더불어 보살피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환경에 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사회복지사는 협력적 성장과 변화에 대해 기대해야 함
- 모든 경험은 도전과 기회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함.

(3) 생태체계관점·강점관점&사례관리

- 인간은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의 과정 속에서 환경과의 역동적인 교류에 참여 함
- 인간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이고, 인생의 요구와 환경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개방체계임
- 참여자에 대해 치료보다는 대처기술의 교육을 강조
- 각 개인의 자기성장, 자기실현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유지/촉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기회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
-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각자의 변화하는 특징과 능력, 정체감, 발달, 자율성 및 자기실현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함.(개별화)

2. 사례관리 과정 - 접수, 자성, 계획

1) 접수

- 사례관리자 소개하기
- 어떻게 연락하게(오게) 되었나?
-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
-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2) 사정

-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 사례관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처하고 생존해 온 강점을 드러내고, 이를 서비스 이용자와 공유하며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우선순위를 규명하고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인 개인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찾고 더욱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탐색하는 과정
-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추가되거나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가능

⇒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 향상

⇒ 서비스 이용자-사례관리자의 신뢰, 협력관계 형성

⇒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이용자의 삶에 대한 기대, 희망, 목표

욕구 우선순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감정)확인

현재 확보된 내·외적 지원

자원(강점)확보, 연계 방법┐

(1) 사정_욕구

-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해결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척도질문

-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 현재 상황,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방법
- 사정 과정 뿐 아니라 점검과 평가의 도구로 유용

* 표준화 척도

-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과 특성, 척도 사용의 목적과 용이성, 척도 내용, 적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척도 조사의 이유와 목적, 조사 결과 고지 여부,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선 동의를 구해야 함.

(2) 사정_강점

- 서비스 이용자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때는 언제인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 서비스 이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은 무엇인가? 그 중 조금이라도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3) 사정_욕구?욕구?

-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욕구가 아님. 명시적 요구 이면에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서비스 이용자도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변화(문제가 해결된 미래모습)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 서비스 이용자 자신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도우려면 서비스 이용자의 대답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면서 자신과 환경이 달라진 모습을 그릴 수 있게 질문해야 함.
- “문제가 해결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4) 사정_저항

-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방식, 우선순위, 가치 등과 사례관리자의 기대, 목표 간의 충돌
- 적극적 의사표현의 한 방식

3) 계획

- 사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변화 목표 합의
- 변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획 할 수 있는 융통성과 유연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함.

(1) 계획_변화목표

- 사례관리 전 과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 서비스 이용자가 문제·욕구가 해결되었을 때, 또는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변화 목표로 삼고 변화 목표의 성취를 관찰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술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 자신이 변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변화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전문 용어로 개념화·구조화하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자의 언어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2) 계획_과정목표

- 과정목표는 변화 목표로 나아가는 단계적 목표인 동시에 과업
- * 변화목표 :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상태, 상황’
- * 과정목표 : 원하는 상태에 다다르기 위한 ‘과업, 과업실천 과정’을 구체화한 것
 -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자원)과 주변 환경의 강점(자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자발성, 주도성 촉진 요소)
 - 자원 선택 시 자원에 대한 접근성, 용이성, 지원망으로서 지속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 자신과 주변 자원 등을 포함하는 실행 주체를 선택하는 것 외에 실행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합의하고 공유해야 함.

Ⅲ. 느낀점

-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개별화 서비스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욕구 파악과 계획이 사례관리자의 중심이 아닌 대상자로 이루어 져야하며, 주변의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이 필요함.

상담사례 교육연수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8년 11월 1일 ~ 11월 2일	
장 소	대전 유성호텔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유명현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8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 교육연수

I. 교육개요

1. 교육명 : 2018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상담사례 교육연수
2. 기 간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2일(금)
3.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4. 일 정

날 짜	내 용	비 고
11월 1일(목)	접수 및 개회	
	전문강의 I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의 이해와 실천'	서연정 팀장 (구립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문강의 II '사람중심 생각과 그 필요성' - 사람중심 PCP 개념 이해 - PCP 필요성 및 중요성	윤재영 교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월 2일(금)	전문강의 III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실제'	전구훈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5.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II. 교육내용

전문강의 I.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의 이해와 실천
 강사: 서연정 팀장(구립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1. 사례관리의 이해
 - 가. 사례관리의 정의
 - 사례관리란 생태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 제공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 이를 통해 환경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접근방법
 - ※ 최근 한국에서는 시군구·읍면동 단위의 공공영역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함.
 - 나. 사례관리 등장배경
 -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전환에 따른 장치의 필요성

: 목슬리에 의하면 탈시설화가 사례관리를 필요하게 했다고 함(D.P.Moxley, 1989).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모아서 시설 서비스와 같이 접근성을 개선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사례관리의 핵심인 서비스 계획임.

: 서비스 방법의 전환 : 치료(cure)에서 보호(care)로

2. 사례관리의 모델-한국 사례관리 현장

가. 한국 사례관리현장에 대한 사례관리 모델의 시사점

- 한국사례관리현장의 특징 : 의존인구, 위험인구의 급속한 증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촉진·옹호 모델을 발전시켜야 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관리 담당자는 사례 발굴체계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해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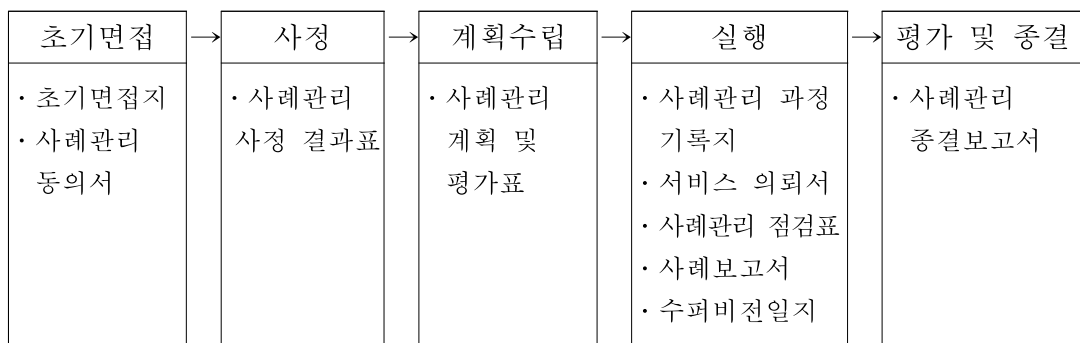
나. 민간과 공공기관의 상대적 장점

	민간기관	공공기관
클라이언트 정보 접근성		○
리포형성능력	○	
직접 서비스 능력	○	
물적자원·공적서비스 결정권		○
인적자원(사례관리 전담인력)		○
전문적 서비스 능력(기관능성에 따른)	○	
네트워크구성능력		○

다. 통합사례회의: 민관협력의 핵심적 기제

- 내부사례회의(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에서 사정된 욕구 검토
: 내부사례회의에서 사정된 욕구를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한 전문기관들이 다시 한번 검토.
-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 : 정밀한 사정의 다음과정으로 C't욕구 충족과 관련된 기관들이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여 명확한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서비스계획서에 자신들의 역할을 명시해야 함.
- 의사결정기구 : 참여자들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주사례관리자 혹은 주사례관리기관, 그리고 사후관리기관도 민주적으로 결정함

라. 사례관리 과정과 기록



전문강의Ⅱ. 사람중심 생각과 그 필요성
강사: 윤재영 교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인 권

가. 세계인권선언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12. 10)
- 전문 :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나. 자유권협약

- 제 1 조 (인민자결권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1. 모든 시민은 자결권을 가진다(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식들을 위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 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다. 국제 인권 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6)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1990)

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 CRPD의 목적은 새로운 장애인권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권을 장애인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하는 것임.
- CRPD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이 더 이상 관리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객체”가 아니라 동등하게 자신의 운명과 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이는 그간의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일반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의료모델이 결점에, 정상화와 사회모델이 불필요한 제약 과 사회적 장벽에 초점을 두었다면, UN CRPD는 최초로 “온전한 사람됨”(personhood)을 요구한다.)

- 제1조(목적)

: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 제12조(법 앞의 평등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persons before the law)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suppor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변화의 시대(지적장애인의 인식 변화)

- 첫째, 지적장애인도 적절한 지원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의 변화
- 둘째, 대부분의 의학적 진단이 지적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실패
- 셋째, 지적장애인의 “마음”(minds)이 아동과 유사하여 정신연령에 맞추어야 한다는(developmental-age-appropriate) 과거의 가정을 버리고 지적 능력이나 제한성과 상관없이 생활연령에 맞는(chronological-age-appropriate) 삶을 경험하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의 우세
- 넷째, 소비자가 주도하는 사람중심 계획 수립 과정(person-centered planning process)과 개인예산제도의 급속한 성장
- 다섯째, 전통적인 양육자(care-giver) 접근에서 벗어나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된 지원 네트워크(support networks)가 필요하다는 서포트패러다임의 등장

바. 서포트 패러다임

- “어떠한 제한 없이 먼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삶의 방식과 접근하고자 하는 환경이 설정되고, 이후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들의 성공에 필요한 서포트의 정도와 형태가 결정됨.”
-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자로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당사자의 권리

(Rights)와 개별유연화(Personalization) 그리고 사람중심 (Person-centered) 접근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

- 지적·발달장애인의 서포트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자기옹호 운동(자립생활운동)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음
- “케어 제공(caregiving)으로부터 **서포트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시간 투자(investing time)로 그 주안점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말함”

2. 사례관리의 변화

- 시스템 주도적 패러다임(systems-driven paradigm)에서 출발한 사례관리는 소비자 운동으로 인해 클라이언트 중심적(client-centered) 그리고 당사자 주도적(consumer-driven)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Moxley, 2012).
- 사례관리라는 휴먼서비스방법론은 시스템 주도적 패러다임 속에서 탄생하였음. 인간의 복잡한 욕구는 다양한 휴먼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 다채로운 서비스 조직 그리고 사회적 급여 체계 등의 조정과 통합을 요구함. 그러나 그간 지역사회의 자원은 늘 부족하였으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기대할만 하지 않음. 사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관리가 되는 사례는 오직 자원을 가진 소비자들뿐임.
- 클라이언트 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 상호간에 인간으로서 맺는 진정한 관계와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함.
- 이러한 형태의 사례관리는 진단과 임상에 입각하여 조정과 중개를 활용하는 기존의 사례관리와 분리될 수 있음. 이는 실천 과정 중에 당사자 중심의 혹은 당사자 통제 가치를 지배적으로 담지하게 됨.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패러다임과 당사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혼용하여 최상의 실천을 탄생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수 있음(Moxley, 2012: 281).

가. 신사례관리

- 개인의 Needs와 Wants를 공히 중심에 둔다.
- 전문가의 Assessment로부터 독립되어 이루어진다.
- 공공영역 밖에서 작동한다.
- 개인예산을 활용한다.

나. 사람중심계획의 탄생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질적이고 현상학적인 시각
- 숙련된 노력과 신중한 경청으로 발달장애인 각자의 삶(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
- 퍼실리테이터, 시민 권익옹호, 서포트 서클을 통해 장애, 서비스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

다. 사람중심 계획의 개념

- “한 사람의 더 나은 미래를 규정하고 창조하기 위해 그 사람의 주변을 조직하는 방법”(Ritchie, 2002: 11)
- 진단하기 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며, 전문용어 대신 쉬운 말과 그림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냄.
- 당사자가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와 현재 상태에 대한 자신의 평가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삶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말하도록 그 사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줌 (Mount, 1992).

라. 공통된 원칙들

-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서, 주로 당사자에 의해 방향이 설정된다
- 가족과 친구의 참여 그리고 개인의 관계 활동이 당사자를 지원하는 일차적인 자원이 된다.
- 당사자의 결핍과 한계보다는 당사자가 가진 역량과 자산에 주안점을 둔다.
- 지역사회 단위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기관, 서비스, 서포트 그리고 일상을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그런 것들보다 우선시 한다
- 불확실성, 퇴보, 잘못된 출발, 그리고 불일치에 관용하며 계획을 세운다(O' Brien & Lovett, 1993).

마. 핵심 가치

- 과정은 단순한 사람중심을 넘어 사람주도가 되어야 한다. (선택과 통제)
- 과정은 열정을 갖고 도우려는 사람들의 관여로 이루어진다. (촉진하는 옹호자-keeping hope alive)
- 이 계획은 지배력을 가진 돕는 자와 눈치보는 장애인 간의 권력 관계를 바꾸는 방법이다.
- 사람중심계획은 계획 뿐 아니라 실행이 함께 따른다.
- 사람중심계획은 결함, 방해물, 문제가 아닌 긍정, 꿈, 열망에 기반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기 보다는 공식적 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경로를 창조해간다.)
- 가장 중요한 과정은 계획 모임(tool) 그 자체가 아니다. 계획과 사후조치 그리고 재계획 등이 중요하다.
- 다각적인 시각을 한데 모으는 창의적인 브레인스토밍이 과정의 기반이 된다.

전문강의Ⅲ.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실제
 강사: 전구훈 교수(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부소장)

1. 왜 강점관점과 해결중심인가?

가. 기존 접근과의 차이

문제중심	강점관점 해결중심
- 문제와 해결책 사이는 필연적 관계	- 이용자의 문제와 그 해결책은 별개
- 전문가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평가	-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
-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확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이며 왜곡되어 있다	-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현재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신뢰함
- 실천가는 이용자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에 관한 전문가
- 전문가의 증거들 중시	- 이용자의 증거들 중시

나. 패러다임에 따른 접근방법의 차이

실천가

전문가	학습자
- 이용자의 문제를 전문적 지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	-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알아내는 학습자
조언하는 자	질문하는 자
해결하는 자	촉진하는 자

다. 강점관점 & 해결중심 접근

- 강점관점이란 문제에서 사람들의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
 :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둬으로써 문제에서 목적을 향한 건설적인 문제 해결과정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제공함(Saleebey 교수)
- 사회복지에서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실천의 모든 것을 재검토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문제와 사회복지 가치에 부합하는 실천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

강점관점	해결중심접근
강점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부재는 강점관점실천의 한계로 지적됨	서비스 이용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천가들이 귀납적으로 발전시킨 해결중심접근은 서비스 이용자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론을 축적해 나감

2. 해결중심접근의 원리와 기초기술

가. 해결중심접근 주요 원리

-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 두기
- 서비스 이용자의 강점에 초점 두고 활용하기
- 서비스 이용자와 협력 관계 맺기
- 현재와 미래에 관심 갖기
-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존재임을 믿기
- 문제와 해결책 사이에는 항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생각하기
- 변화는 늘 있는 것

나. 해결중심접근 실천 원칙

- 서비스 이용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실천가가 먼저 고치려 하지 말라
- 효과가 있는 것은 유지하라. 더 많이 하라
- 효과가 없다면 다른 것을 하라

다. 알고 싶어 하는 자세(not knowing pos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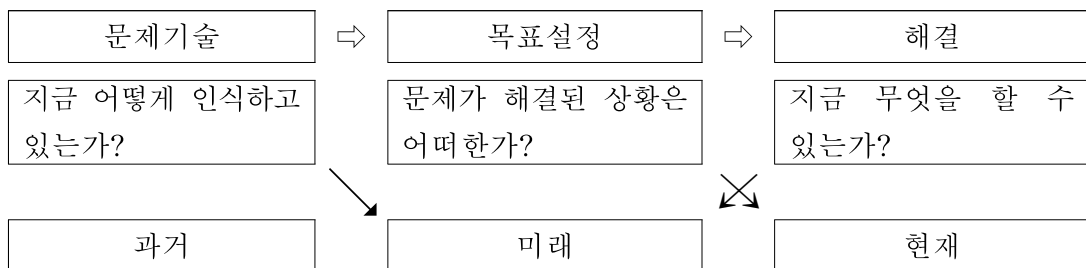
- 이용자를 자기 삶의 전문가로 존중하고 이용자의 준거틀을 탐색하기 위한 실천 전략
- 실천가는 이용자에게 묻지 않으면, 이용자의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아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 이용자의 인식과 해석에 의지함
- 실천가를 권위 있는 자리에서 나오도록 변화시키고 의사소통을 위해 열려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함
- 알고 싶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실천가는 이용자 문제와 변화에 대한 자기 선입견이나 기대를 전달하는 대신 이용자의 생각을 더 알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며 행동

3.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과정

가. Warm-Up

- 그 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나. 면접의 과정



다. 해결책 구축과정

- 1단계: 문제 기술

- 호칭설정: 인사, 이용자를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물어보고 합의
- 진행방법 안내: 진행방법 명확히 하기, 보통 40분 면접 10분 휴식 후 피드백
- 문제기술: 실천가는 '알고 싶어하는 자세로' 이용자의 지각을 묻기
 - : 이용자의 이야기 존중하기
 - :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이용자의 생각 알기
 - : 이용자가 자기 지각에 책임지게 함
- 시도해본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해본 방법 탐색
 - : 알고 싶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용자의 성공경험과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사용한 감정 찾기

- 2단계: 목표 형성

- 이용자가 자기 삶에서 달라지기 바라는 것
-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용자의 동기 상승
- 이용자가 가장 먼저 해결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
-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확대(기적질문)

- 3단계: 해결("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 예외: 예외 알아보기
 - : 예외란 이용자의 과거 생활에서 일어났던 경험으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리라 예상했지만, 발생하지 않은 상황
 - : 예외를 구체적으로 알아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 성공경험과 강점: 예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견

4. 강점관점 해결중심으로 질문하기

가. 예외 질문

- 예외에 대한 인식=해결책
-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현재, 과거의 성공 인식
- 이용자의 가장 최근 예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이용자의 미래가 보다 희망적이라는 단서 제공(이용자가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차이 인식-> 변화창출
- 예외탐구를 통해 이용자의 강점 발견 및 강화가능(해결책 구축의 기반제공)
- 문제상황과 예외상황의 차이 파악
- 예외에 나타난 이용자의 노력과 성공경험 요약과 지지(칭찬하기)

-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요?
- 오늘 어떻게 상담을 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죠?
- 살아오면서 ‘이래서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언제 있었나요?
-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나. 대처 질문

-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압도된 이용자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견어내고 있는지를 질문
-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음
- 이용자는 누구이든 간에 이전에 경험한 충격적 사건과 현재 겪는 고통에도 어쨌든 견뎌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살아서 숨쉬며 실천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음
- 이용자는 지금까지 대처해 온 방법을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자신의 감정을 두려움과 외로움, 불행에서 분리하여 힘든 상황과 고통을 견디려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춤
- 힘들었던 감정이 치유되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도 함

- 지금까지 지내면서 도움이 된 게 무엇이었나요?
-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견뎌올 수 있었나요? 어떻게 지금까지 잘 해 올 수 있었나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 그리고 또 도움이 된 게 어떤 게 있었나요?
-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다. 기적 질문

- 이용자가 문제를 생각하는 대신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그려 보게 함
- 이용자가 변화가능성을 마음껏 생각하게 함
- 미래에 초점을 맞춤
- 기적질문을 한 후 이용자가 실제로 해 볼만 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후속 질문을 해 나가야 함
- 기적질문의 정도는 이용자 특성에 맞게 조정, 삶에서 큰 혼란을 경험한 이용자는 기적의 크기를 축소해 질문

-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곳에 오게 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당신이 지내는 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 오늘 밤 잠든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상상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른 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 다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알까요?
-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하게 될까요?

라. 척도 질문

- 이용자가 자신이 한 관찰과 예측을 0에서 10까지 숫자로 평가하게 함
- 이용자가 복잡한 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함
- 자존감, 첫 면접 전 변화, 자신감, 변화하고 싶은 마음, 변화를 위해 노력한 의지, 해결문제의 우선순위, 희망에 대한 인식, 나아진 정도의 평가

- 이야기한대로 다 해결되었을 때가 10점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1점이라면, 지금은 몇 점인가요?
- 좀 전에 이야기한 기적같은 때가 10점이고 가장 힘들때가 0점이라면 오늘은 어디쯤인가요?
- 10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할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0은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0부터 10까지 노력할 의지가 어디쯤 되나요?

- 5점이세요? 5와 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5점이라는 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길래 5점까지 올 수 있었나요?
- 지금보다 1점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지내고 있을까요?

마. 관계성 질문

- 이용자의 상황, 변화 의지, 나아진 모습 등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질문함
- 이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움
- 이용자의 해결구축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강화함
- 이용자가 자신이 나아진 결과를 전체맥락이나 체계적 관점에서 보게 함
- 이용자가 발전시켜 나가는 목표와 해결방법이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

-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될까요?
-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Ⅲ. 제언 및 향후계획

사례관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복지관내 다른 사업팀과는 물론 다른 기관과도 연합사례회의를 실시하며 C't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맞춰 보다 질적인 사례관리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으며 C't의 개별욕구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C't개인의 역량강화 및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C't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마지막 강의였던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경우 당사자 중심, 욕구중심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었으며 이러한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Ⅱ. 교육사진



강의1.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의 이해와 실천



강의2. 사람중심 생각과 그 필요성



강의3.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실제

어르신상담센터 공개상담슈퍼비전



주 최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기 간	2018. 12. 20. (목) / 1일	
장 소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변재봄, 이안나
	인 원	2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 12. 20. (목)
	시 간	16:00 ~ 18:00 (2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어르신상담센터 공개상담슈퍼비전

1. 딸의 자살로 인한 애도상담 후 추수상담 진행중인 사례

- 슈퍼바이저: 남석인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사례 1.

- 개요 : 69세 / 남 / 무직

- 문제 : 올해 2월 자녀의 자살이후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휩싸이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임.

- 목표

: 감정 털어두기, 죄책감완화와 정서환기

: 부정적정서 스스로 관리하기

: 혼자 사는 삶에 의미 찾기. 미래 삶에 대한 계획실천

- 논의사항

: 애도상담에 대한 전반적 과정

: 구체적인 기간선정에 대한 기준

: 추수상담 기간에 봉사자와의 시간고정 관리

: 동년배 상담가와의 상담 중단 시에 정리방법

- 슈퍼비전

1. 애도기간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이 필요한 순간에 개입.

그중 가장 필요한 시기는 2개월 이내. 평균적으로는 6-8주 까지 애도기간을 갖는 것이 적당.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입이 필요함.

슬픔에 대한 공감, 위로에 갇히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한 목표설정

2. 상담가의 책무

얼만큼 상담가가 케어 할 수 있는가?

업무의 균형 맞추기 -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상담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

공공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3. 개별or집단상담

집단이 필요한 경우는 급하게 모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집단 애도상담이 필요

한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집단으로 진행

핵심은 애도상담이 아니라 집단 안에서의 관계망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해결책을 내어주며, 새롭게 하고 싶은 방향을 찾는 것

좋았던 기억을 정비하며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사랑을 찾기

4. 동년배상담가 활용&관리

전문가 상담 뒤 비전문가의 상담은 어려움이 있음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진행내용, 날짜 등을 정하는 계약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가 아닌 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조정하여 맞추는 것

5. 커뮤니티케어 연계

나의기법으로 상담하기

내가 직접 나를 벗어나는 영역만 연계하기

* 동년배 상담가(노인상담 자원봉사자)란?

- 상담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경험을 보유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상담 기초교육을 진행하여 상담봉사가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함.
- 전화상담, 내방, 1:1 만남으로 이루어짐

2. 참여 소감

- 우선 공개상담 슈퍼비전에 참여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음. 지역연계팀 주 대상층이 어르신인 만큼 당사자의 사망 혹은 무료급식소와 재가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그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가 많았음. 사망 후 6~8주가 애도기간임을 기억하고 이 시기를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들이 잘 버텨내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겠음.
- 집중사례관리사업을 전담으로 담당하면서 담당자의 책무와 한계에 대해 고민할 때가 많았음. 장기화된 애도상담을 진행하며 상담가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공개상담 대상자를 보며 내가 당사자와 가족을 의존하게 만든 순간은 없었는지 혹은 나의 책무를 다해왔는지 돌아볼 수 있었음. 사례발표자의 기록처럼 상담 기록시, 주제나 소소한 목적 등을 기록하며 성찰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
- 기관내에서 사후관리, 추수상담에 대한 방법으로 동년배상담가라는 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웠으며 본관에서도 차후에 계획하여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음.
- 다양한 복지기관에서 공개상담슈퍼비전에 참석하였으며 질문과 느낀점을 이야기 하며 서로 기관에서의 어려움을 알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 본관의 사례관리자로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음.

2018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주 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기 간	2018년 11월 12일 ~ 13일 10:00~16:00	
장 소	4층 전산교육장	
참석자	팀 명	운영지원팀
	명 단	채은정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10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강아이를 위한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회계기초)

강사 : 박혜란

● 표준 계정 체계로의 전환

시설별 계정 체계(01차수) - 계정과목 자유롭게 등록가능

-> 표준 계정 체계(02차수) - 항, 목 하위계정 추가등록 가능, 세목계정 자유롭게 등록가능

※ 세목을 추가하려면 상위계정인 목에서 신규로 추가

1. 기초등록

1-1) 통장계좌등록 [회계 ▶ 기초등록 ▶ 통장계좌등록]

계좌구분	일반	보조금수령	후원금수입
	회계	회계,시군구보고	회계,후원관리
	-	보조금교부신청시	후원금수입등록시

1-2) 사업코드등록(신규) [회계 ▶ 기초등록 ▶ 사업코드등록]

회계는 각 사용자별로 할당된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한 경우 반드시 [회계>기초등록>사용자별사업매핑] 메뉴에서 회계담당자ID와 사업을 연결해야 한다. [운영비-공공요금, 생계비-생계비, 인권비-급여] 와 같이 회계 사업을 1:1로 등록하여 따로 나누면 정산 보고 시 편리한 장점이 있다.

1-3) 사용자별사업매핑 [회계 ▶ 기초등록 ▶ 사용자별사업매핑]

사업 혹은 아이디를 신규로 추가한 경우 항상 사용자별사업매핑을 설정해야 한다.

※주의※ 회계담당자 아이디에 담당사업을 연결하지 않으면 결의서 작성화면에서 사업 자체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결의서를 등록할 수 없음.

2. 결의및전표관리

2-1) 수입/지출결의서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복사 : 기존에 입력된 결의서를 원하는 일자로 똑같이 복사하고자 할 때 사용

결의서템플릿 : 자주 발생하는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템플릿으로 미리 등록 후 선택하여 사용

2-2) (-)수입결의서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 중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사용

※주의※ 입금된 금액을 돌려줬을 경우 지출 처리하면 장부 상 지출 누계액 증가

수입	지출
+100	
	+100
	지출누계액증가

수입	지출
+100	
-100	
변화없음	

2-3) 구입과지출결의서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물품구매내역을 포함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사용

2-4) 여입결의서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전표등록관리]
 ※주의※ 지출 후 되돌아온 금액에 대해 수입 처리하면 장부 상 수입 누계액 증가

수입	지출
	+100
+100	
수입 누계액 증가	

수입	지출
	+100
	-100
	변화없음

2-5) 품의서 [회계 ▶ 결의및전표관리 ▶ 품의서관리 ▶ 품의서등록]
 지출건에 대해 결재권자에게 사전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
 -> 지출결의서 연계를 통해 품의서에 등록된 내용이 지출결의서로 복사

3. 전년도 이월금 처리

연도별 잔액(12월 31일 최종잔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3-1) 전년도이월금처리 활용 - (전월이월) 적요란에 따로 금액이 집계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전월이월>	5,500	-	5,500
'18.01.01	00수입	500	-	500
'18.01.01	00지출	-	1,000	1,000
	<계>	6,000	1,000	5,000

3-2) 수입결의서 활용 - 거래 내역에 집계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전월이월>	-	-	-
'18.01.01	전년도이월금	5,500	-	5,500
'18.01.01	00수입	500	-	500
'18.01.01	00지출	-	1,000	1,000
	<계>	6,000	1,000	5,000

4. 예산

재무회계규칙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1) 예산서보고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예산서 ▶ 예산서보고 조회]
목록 상태 값

- 1) 작성 : 기안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
- 2) 승인요청 : 기안자가 시설 내부 결재권자에게 승인 요청한 상태
- 3) 시설승인 : 시설 내부 결재권자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

▼ 삭제불가능▼

- 4) 시군구전송중 : 시설에서 작성한 보고 문서가 지자체로 전송중인 상태
- 5) 시군구접수 : 지자체에서 보고문서를 접수한 상태
- 6) 시군구승인 : 지자체에서 보고문서를 승인한 상태

4-2) 예산서보고(공문작성)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예산서 ▶ 예산서보고 조회
▶ 공문]

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간 실시간 연계를 위해 상태 확인 기능 추가됨

공문상태 확인 버튼은 시군구접수/반려/승인 상태에서만 나타남.

행복e음과 상태가 같을 경우) 알림 팝업만 나타남.

행복e음과 상태가 다를 경우) 행복e음과 동일하게 공문상태를 변경하며 팝업으로 나타남.

제 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실무자로서 변경되거나 추가, 또한 몰랐던 기능을 사용 해봄으로써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다.
-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었다.
- 회계 기초과정을 배우면서 기안 작성부터 예산의 이해, 관항목구분 방법, 재무회계규 칙의 중요한 원칙 등을 배우는 유용한 시간이였다.
- 전표 삭제와 같은 실수를 범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2018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1차 전문인력 신규교육



주 최	한국장애인개발원	
기 간	2018. 3. 12(월) ~ 3. 14(수)	
장 소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트리스타홀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안경진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일
	시 간	총 17.2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8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1차 전문인력 신규교육

1.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안내

(윤용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 1) 설립미션 : 우리는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
- 2) 설립비전 : 장애인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의 중추기관
- 3) 핵심가치 : 열정, 신뢰, 변화, 소통
- 4) 설립근거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 개발, 복지진흥 등을 수행함.
- 5) 주요사업 :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개발과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역량 집중
 - 정책연구사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국제협력
 - 인식개선사업
 - 이룸센터 관리 및 운영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안내

(박제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평가팀)

- 1) 목적 :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2)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3) 사업예산 : 18,939백만원
- 4) 총괄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2008년 1월 지정)
- 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현황

- 전문인력 교육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질 높은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현장의 사업 제한에 대한 컨설팅 환류
- 직업재활컨설팅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컨설팅모델 개발을 통해 컨설팅이 필요한 직업재활 사업 수행기관 등에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관역량강화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질 재고 목적
-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직업재활 사례관리 및 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업재활 서비스 효율화의 제고를 도모

3.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손미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1)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현황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예산 : 65,474백만원
- 총괄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2010년 1월 지정)
- 사업유형: 복합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사업 안내

(문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일반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만드는 생산품(용역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해당 시설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5.사업운영규정의 이해

(조보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1) 직업적응훈련

- 훈련기간 : 1개월 ~ 3년
- 훈련시간 : 1일 기준 4시간이상, 월 기준 80시간 이상
- 단, 하계 및 동계 방학에도 월 훈련시간 기준준수(반드시 확인)

- 훈련인원 : 전문인력 1인당 최소 5인 이상 15명
- 단, 필요에 따라 개발원장의 승인 득한 후 최대인원의 20%(18명)범위 내에서 훈련생을 추가
- 훈련생변동보고 : 신규, 재훈련, 중도탈락, 수료, 취업 등이 발생시 7일 이내 반드시 개발원보고, 사업실적입력시스템에 입력

1-1) 직업적응훈련 대상 제외자

- 훈련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한 후 3개월 미경과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취업자(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등 가입자)
- 훈련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한 사람(타기관 및 동일기관)

1-2)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 1항1호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가 아닌 자
- 훈련기간 중 단위 기간(개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지급액: 월7만원/1인당, 1일 훈련단가/3,500원

1-3) 직업적응훈련수당 신청 및 지급

- 신청 : 매분기 10일 이내,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기준 참고
- 방법 : 팩스(필요시 우편으로 요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각 1부)		
공통		추 가
공문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신청서 직업적응훈련수당 신청 내역서 출석부 사본	1/4분기	훈련생 통장사본
	2/4분기	1~6월분 출석부 사본 평균훈련생 산정 내역서 훈련생 주민등록등본(시설훈련생 및 재가장애인)
	3/4분기	해당사항 없음
	4/4분기	7~12월 출석부 사본 평균훈련생 산정 내역서

- 훈련수당 지급 : 결격사유 없을 시 서류접수 후 15일 이내 훈련생 개인계좌로 훈련수당 지급

1-4) 훈련생 변동보고

- 훈련생 변동보고
-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일로부터 7일 이전 또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원 사전승인 또는 보고 하여야 함.
- 훈련교사 및 지원사업 담당자 변동보고
-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교사 및 지원사업 담당자(본 지원사업 행정전담 인력)의 변동(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원에 보고함.
- 보고방법 : 팩스

2)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매년 12월 10일까지 당해 기관의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개발원에 제출한 후 매회계년도 사업종료 후 연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개발원에 제출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훈련계획서를 개발원에 제출한 다음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보고서’를 개발원에 제출함.

3)전문인력 운영관리

3-1) 전문인력 자격기준

- 전문인력 : 사업수행기관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한국 장애인개발에 보고되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
- 전문인력 채용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각 기관의 인력기준에 따라 선발
- 졸업예정자 등 채용기준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도 채용가능

3-2) 전문인력 인원변동 보고

-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은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원에 보고함.
- 보고방법 : 팩스
- 제출서류 : 공문, 전문인력 변동보고 및 ID 발급 신청,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3-3) 전문인력 경력인정

- 경력인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구 기금사업) 전문인력 근무 경력만 인정, 단, 준경력은 인정함.

3-4) 교육 참가 의무 및 퇴직금

- 수행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이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가하도록 해야 함.
- 신규인력은 입사일 최초 개설되는 신규인력 교육, 경력 1년 이상의 전문인력은 1년 1회 이상 전문인력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함.

구분	교육 대상	교육횟수(시기)	참가의무
신규교육	경력 1년 미만의 전문인력	연 2회(3,9월)	의무
보수교육	경력 1년 이상의 전문인력	연 3회(3,6,9월)	
특화교육	전문인력	수시	자율
평가대회	전문인력 및 팀장급 이상 관리자	연 1회(12월)	

- 퇴직적립금 : 근무년수 1년 미만의 전문인력
- 퇴직연금제도 : 근무년수 1년 이상 전문인력
- 퇴직연금의 유형 :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퇴직계좌(IRA)

구분	시기	퇴직적립금 방식	퇴직연금 방식
산정	매월	-인건비 실지급액의 1/12을 퇴직적립금 계좌로 입금	-인건비 실지급액의 1/12을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지급	매년 12월말 또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 X 근무 개월 수/12) *근무기간 중 인건비 상승으로 퇴직금 정산액이 기 적립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적립하여 퇴직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근무기간 중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별도 정산조치 없음

3-5) 특근식대 집행

- 지급대상 : 전문인력(기관 자체인력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
- 지급기준 : 정규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실비지급
- 지급단가 : 1인 1식 10,000원 이내(실비)
- 증빙서류 : 특근명령부(특근일자, 결재, 특근자, 특근시간, 특근업무내용), 영수증

3-6) 여비

- 여비의 범위 : 일비 20,000원 이내
- 4시간 이상 : 20,000원 이내에서 지급
- 4시간 이하 : 10,000원 이내에서 지급
- 근무지 내 출장 시 위 지급액 이외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택시비, 전철요금, 시내버스 요금, 광역버스 요금 지급하지 않음)
- 여비의 범위 : 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 숙박비, 식비, 일비 등

구분	범 위	내 용
운임	실비	출장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40,000원 이내 / 1박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만 인정)
식비	20,000원 이내 / 1일	출장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주최기관에서 1일 2식 이상 식사 제공시 식비 제외)
일비	20,000원 이내 / 1일	출장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정액지급)

6. 예산 관련 서식 활용 안내

1) 예산신청 시기

- 매 분기 예산은 매 분기 개시 전월의 15~20일 사이에 예산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함.
- 홍보비 및 비품비 등은 개발원의 교부 안내에 따라 신청함.
- 1/4분기 예산은 개발원에서 별도 안내된 일정에 따라 신청함.

2) 예산 관리

- 개발원을 통해 배정받은 자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집행함.
(사업비 계좌 및 퇴직적립금 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본 자금만 운용)
- 집행잔액 및 통장발생 이자는 12월 정산 시 반납함.

3) 예산 집행 원칙

- 사업비는 중증장애인지역재활지원사업 수행 및 전문인력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경우만 집행 가능함.
- 사업비는 개발원이 정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수행기관장이 사업목적부합에 따른 집행 인정여부를 판단, 결정하여 예산을 집행함.
- 사업수행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라도 개발원은 추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해당 항목이 사업목적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 불인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적합성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발원에 사전 의논 바람.
- 특히, 사업비에서 1개 항목에 대한 분기단위 집행금액은 세목별 해당 분기 총 교부비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4)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주의사항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야함.
- 예산집행실적 보고 및 세목별 집행내역서에 따라 개발원장에게 보고함.
- 단, 4/4분기 자금집행실적은 별도 안내된 일정에 의하여 개발원에 보고함.
- 각 세목별(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로 달리 작성하여 제출함.
- 세목별 집행내역서에는 금액에 불문하고 모든거래를 기재해야 함.
- 적요의 내용은 거래사실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재함.
- 업무협의식대, 선물대 등 업무추진비 성격 지출의 경우 적요 말미에 '업무추진비'란 문구를 명기함.

5) 비용정산

- 정부회계연도에 따라 연도 말 12월 23일까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므로 모든 사업비용(인건비, 기관부담금, 사업비, 비품비, 홍보비) 정산함.
- 수행기관은 12월 23일까지 예산잔액, 퇴직적립금, 이자소득 등 잔여지원액 일체를 반납하고, 예산집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정산을 완료해야 함.

6) 집행 불인정 항목

- 기관 사업비 및 운영비 성격의 항목
- 사업관련 항목
- 직업적응훈련생 이외 타법령에 의해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인원에 대한 외부 프로그램 관련 식대 등 일체의 훈련비용
- 1인당 5,000원을 초과하는 직업적응훈련 및 간담회 등 프로그램 간식비
- 1업체당 20,000원을 초과하는 업체관리 성격의 음료 구입 등 업무 추진비

7) 사업 관련 항목

- 근무지내·외 출장시 시내버스, 전철, 택시 및 광역버스 요금
- 근무지내 출장시 식비
- 근무지외 출장시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숙박비
- 1인 1식당 20,000원을 초과하는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식비
- 1회당 50,000원을 초과하는 직업적응훈련생, 취업자 및 사업주 선물비

7. 사업실적교육

(김소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1) 사업실적입력

- 익월 5일까지 월 1회 입력함.
- 각 수행기관에서 입력한 자료는 본 원에서 승인한 이후 조회가 가능함.
- 승인 후 실적 수정이 필요한 기관은 '실적변경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팩스로 발송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요망.
- 복지부 분기 보고 후에는 실적 수정이 불가하므로 매 분기별 정확한 검토 요망.

8. 전산 시스템 교육

(이상훈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산담당)

1)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 관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담당인력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업무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로그인 방식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이 아닌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2018년 4월 중 변경 예정).
-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한 전문인력은 ID찾기와 비밀번호 찾기 기능으로 초기화나 수정을 해서 재로그인을 해야 함.
- 회원가입 시 전문인력의 기본정보와 경력을 입력해야 하는데,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정보 중 근무기간을 변경할 수 없음. 따라서 수정시에는 개발원 전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근무기간을 수정해야 함.
- 전문인력의 회원 정보 가운데 관리담당 업무를 체크하고 해당정보를 입력하면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정보를 SMS 메시지로 미리 안내를 해줌.

-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과 상관없이 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인력이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퇴사처리를 해야함. 다만 전문인력이 해당 기관을 퇴사 후 처리가 취소되거나 다시 그 기관으로 재입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가 전문인력 리스트에서 해당직원의 재입사 신청을 진행하면 됨.

2) 기타기능

- 25분간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로그인 시간 연장 기능 팝업이 뜨게 되는데 이 때 로그인 연장을 해야 시간이 연장이 되며 보안 조치 사항의 일환으로 중복로그인이 불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문서 보안(DRM)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 및 이미지를 보안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앞서 문서보안(DRM)솔루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해야 함.
- DRM문서보안 프로그램을 윈도우10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 엑셀과 PDF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등이 실행이 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DRM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오류가 해결될 수 있음.

3) 장애인 서비스 관리

- 대상자 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전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삭제를 할 수 있음. 다만 대상자 정보만 입력하였을 때만 삭제가 가능함.
- 입력한 대상자 정보를 타 기관에서 공유를 할 수 있고 타 기관에 등록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를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타 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음.
- 직업적응훈련의 출석부는 익월 5일까지, 수당 신청은 일월 10일까지, 사업실적 등록은 익월 말까지 입력을 마감해야 함.
- 직업적응훈련 정보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을 때에는 업무 처리한 순서의 역순으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함(직업적응훈련계획관리-출석부-훈련일지-월간수당신청내역서-분기수당 지급신청서).
- 취업정보와 관련하여 취업알선일은 사업체 개발의 구인등록의 구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취업 정보를 입력 할 시에 취업일은 취업알선일보다 같거나 크게 입력해야 오류가 나지 않음.
- 훈련생의 퇴사처리는 반드시 해야 함.
- 타 기관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훈련생의 취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서 퇴사를 요청해야 함.

4) 공문관련

- 업무관리 시스템의 공문발송탭은 수행기관과 개발원 사에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하는 곳이며 업무관리 시스템의 모든 메뉴는 공문발송탭과 연동되어 있음.

- 화면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공문을 발송할 시 기타 공문 탭에서 등록을 해야 함.

9.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이상훈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산담당)

1) 개인정보 통합관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61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통합을 추진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7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등에 대한 통합관제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컫음.

2)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교육

- 오남용은 비권한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조회 및 이용, 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일컫음.
-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을 허가 받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악용하는 공격 또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를 일컫음.
- 개인정보유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함.

3)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심각성

-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외부 해킹이 아닌 단순 실수 또는 의도적(개인정보 매매)개인정보 유출.
- 침해 건수는 작지만 정보의 최신성 및 민감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지인 혹은 중간 브로커가 개인정보 유출의 매개체 역할을 함.

4) 개인정보통합관제의 오남용 사례

4-1) 사용자 ID 공유

- 하나의 ID로 두 대 이상의 서로 다른 PC에서 접속하는 경우
- 하나의 ID로 여러 PC에서 접속하는 경우
- 하나의 ID로 단시간 차이로 서로 다른 PC에 접속하는 경우
- 하나의 ID로 잦은 접속 PC를 변경하는 경우
- 하나의 ID로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 접속하는 경우

4-2) 권한 제한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휴직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퇴직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4-3) 동일한 IP에서 다수의 ID가 접속하는 경우

- 타 부서 및 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동일 IP로 접속하는 경우

4-4) 접근 대역 외 접속

- 개인정보 취급자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접속한 경우
- 사용자 ID가 해외에서 접속한 경우

4-5) 개인정보의 과다 조회

- 조회한 개인정보의 수가 임계치 이상을 넘은 경우
- 다량 개인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임계치 이상 사용한 경우
- 개인정보를 과다 조회한 경우

4-6) 보안 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 과거 징계 혹은 부적정 판정을 받은 자가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4-7) 성명을 이용한 주민번호 조회

- 주민번호를 변경한 동명이인의 개인정보를 임계치 이상 조회하는 경우

4-8) 특정 업무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하는 경우

- 사용빈도가 낮은 프로그램 또는 유의(민간정보조회)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5) 개인정보통합관계의 의심사례 소명 답변

- 소명 대상자는 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전달함.
- 소명기한 내에 답변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미제출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소명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6) 개인정보통합관계의 오남용 표준 징계 기준

6-1) 개인정보 목적 외 열람 및 이용, 유출에 따른 징계 수위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및 관리소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고의가 있음	강등-정직	파면-해임	고의가 있음	해임-강등	파면-해임
중과실	감봉	강등-정직	중과실	정직	해임-강등
경과실	견책	감봉	경과실	감봉-견책	정직
비위의 정도	약함	심함	비위의 정도		

6-2)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이용에 따른 징계 수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을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견책

6-3) 연대책임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 양형 기준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조치	
과면-해임	경고	개인정보 위반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	퇴사
강등-견책	주의	개인정보 위반사항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	경고

6-4)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유출 시 상기 징계수위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처벌 수위 적용

민감정보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정보)
일반 개인정보	상기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개인정보
중요·고유식별 정보	대상기관이 정의한 중요한 개인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10. 직업재활서비스의 정책 및 제도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1) 소득보장정책

-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연금, 수당, 공공부조로 구성
- 연금 : 일반적으로 재정을 개인의 기여의 의존
- 수당과 공공부조: 일반 조세에 의존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님(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지급하기 때문).
- 우리나라의 장애인대상 소득보장정책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1) 장애인 연금

- 장애로 인한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재원은 별도의 연금보험료가 아닌 세금에서 확보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지급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단독가구 :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2018년 기준)
- 장애인 연금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음.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의 보전을 위

- 한 급여로 만 18세~64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 유지자가 받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여로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가 급여의 대상임.

대상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18~64세	284,010원	204,010원	80,000원
	65세 이상	284,201원		284,010원
차상위	18~64세	274,010원	204,010원	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	224,010원	204,010원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40,000원

1-2) 장애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수당
- 재원은 별도의 연금 보험료가 아닌 세금에서 확보
- 국가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3~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씩 지급됨.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할당고용제라고도 하며, 고용인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OECD의 총 30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이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의무고용률을 그 나라 사정에 따라 1.8%부터 7%까지 다양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장애인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실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순기능이 높음.

3) 직업재활정책

- 직업재활정책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보호고용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고 기타로 중소기업청과 교육부 추진 사업이 있음.

3-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일반사업수행기관 : 취업알선,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직업능력개발훈련(172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현장훈련중심, 시범사업 등
- 특화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카페(I got everything),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지역사회 직업재활네트워크사업 등을 수행.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사업수행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음.

3-2) 보호고용제도

-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94.5% 차지하며, 이들 가운데 지적 장애 73.4%, 자폐성 장애 5.8%, 정신장애 5.4%를 차지함.
- 보호고용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 근로사업장은 84.5만원, 보호작업장 38만원

3-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 지원(국가 및 공공기관 1% 이상).

3-4) 장애인 일자리사업

- 일반형 일자리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일자리 :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과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3-5) 장애인기업/창업지원

- 장애특성과 개인별 역량에 맞춘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발굴, 장애인 창업지원
- 주요사업: 창업교육, 판로지원,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연계, 상담지원

3-6)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 현장중심 진로, 직업교육 강화
- 주요사업: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전문화 및 특성화, 지역사회 기관연계 취업 지원 체계 구축,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거점학교 운영

4) 서비스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민간취업 및 고용유지, 공공 및 민간일자리 지원
- 지방정부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구매 지원
- 기타 : 노동부-공공 및 민간취업 지원, 교육부: 학령기 일자리 지원

5) 직업재활 이슈 및 방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개편 본격화(2018. 02)
- 장애등급제 폐지 본격화(2018. 03)

5-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18~22년) 주요 개선 내용

-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100개 지정
- 장애인 연금 지초급여 인상(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탈시설지원확대, 교육권 보장 확대 등

11. 매뉴얼을 활용한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이해

(박광욱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 직업재활서비스의 용어

- 직업재활 계획수립 :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결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종의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 단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

- 직업적응훈련 : 장애인이 실제적인 작업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 및 사회생활, 직업준비,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도달 가능한 직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취업알선 : 구직 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임.
- 취업 : 취업은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의 형태로 장애인과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애인이 1일 이상 출근함을 의미함.
- 종결 :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목표 달성, 타 기관 의뢰,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거나 받을 수 없어 직업재활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함.
- 접수 :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혹은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관련기관이 의뢰하는 사항을 접수받고 처리 하는 것
- 직업상담 : 직업상담은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 직업재활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
- 직업평가 :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 및 잠재능력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는 것
- 적격성 결정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신청한 장애인이 해당기관의 대상자로 적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2) 사업수행기관의 주기능 및 부기능

기관유형	주기능	부기능
직업재활센터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 결정,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주기능과 동일함.
직업평가센터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 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재활시설	직업상담, 적격성 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직업평가, 취업 후 적응지원
장애인단체	직업상담, 적격성 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취업알선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3) 주기능

- 사업수행기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직업재활서비스
- 사업수행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일부를 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할 수 있음.

4) 부기능

- 업무수행기관에서 수행하기를 권장하는 직업재활서비스
- 사업수행기관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님을 원칙으로 함.
- 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거나 기관의 여건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 있음.

5) 장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직업지원방향의 탐색

-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 쟁점

구분	개별적, 재활모델	사회적, 자립생활모델
문제 정의	신체, 정신적 손상	편견, 건축물, 경제적 장애
문제 위치	개인	환경, 사회
해결 주체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해결 방법	치료 및 행동, 기능향상	태도, 환경의 변화

- 각 패러다임의 장애 정의

구분	정의	특징
개별적 모델	매일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중대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	장애인은 위협에 있는 것으로 간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사회적 모델	능력 장애나 손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진 것으로 보이거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

6) 장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근 시도들

- 개별유연화, 자기주도 지원(장애인의 선택과 통제)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로 장애인 정책의 변화 시도
- 인권침해,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을 개소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자기옹호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최중증장애인지원 강화로 도전적 행동지원 사업과 긍정적 위험감수 제도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간활동 급여제공 실시 -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 등의 세부급여 지원)

12. 소감 및 제언

본 신규인력교육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능력향상의 도움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본 사업에 관한 교육만이 아닌 조별토론과 실제 직업재활 전문가로서의 직업재활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일정으로서 조별모임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위치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업재활 서식과 이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고 배울 수 있었고, 실제 내담자와의 상담실습을 통하여 내담자의 신체적조건·성격·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재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취업알선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개별고용계획서를 토대로 수퍼비전을 받고, 상담 시 알아야 할 내용들과 방법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 받아 추후 직업상담 과정에서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데 보탬이 많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신규교육 내용과 구성이 교육의 참가 인원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수행한지 3개월도 채 안되는 인원들이 대부분인 교육에서 구체적인 문서작성과 행정처리과정을 교육하고 실제 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학술적 내용을 강의함에 따라 교육 집중도 및 몰입도가 다소 감소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신규교육을 통하여 직업재활시설에서 꼭 필요한 직업재활이론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과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신규 전문인력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참가한 많은 신규 전문인력들과 친분을 쌓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카와 베델의 집을 다녀와서



주 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기 간	2018.4.11.(수)~4.14(토)/3박4일	
장 소	우리카와 베델의집	
참석자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진욱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4.11.(수)~4.14(토)
	시 간	3박4일



재단법인 ·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우라카와 베델의 집을 다녀와서

I. 연수 일정

일 자	장 소	시 간	과 목 명
1일 4/11 (수)	인천공항 치토세 우라카와 베델의집	06:30 11:00 12:00 13:00 18:00 20:00	인천공항 탑승수속 시작 삿포로 치토세 공항 도착 점심식사 우라카와 이동 베델의 집 환영교류회 연수 오리엔테이션
2일 4/12 (목)	우라카와 베델의집	07:00 09:00 15:00 18:30	아침식사 베델의 집 연수 우라카와 히가시 진료소 연수 베델의 집 연수 평가회
3일 4/13 (금)	우라카와 오타루	07:00 09:00 12:00 13:00 18:00 20:00	아침식사 오타루 이동 점심식사 홋카이도의과대학 한일 교류 석식 베데르이 집 연수 평가회
4일 4/14 (토)	삿뿌로	07:00 09:00 10:20 12:30 15:40	아침식사 JR 이용 공항이동 삿뿌로공항 탑승수속 시작 삿포로 치토세 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II. 연수 보고서

1. 베델의 집이란?

만약 그에게 다른 사람의 두 배나 되는 끈기와 다른 사람을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 능력이 있었다면 현재의 ‘베델의 집’의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야사카 씨의 ‘약함’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긍정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을 잇는 ‘유대’가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 ‘베델의 집’은 지금에 이르렀다.

일본 홋카이도 구석에 있는 인구 1만 5천 명의 조그마한 어촌 우라카와. 이곳에서 일본 정신의학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베델의 집’ 이있다. 20여 년 전 우라카와 적십자종합병원의 정신과 환자들과 입·퇴원자들 중 주로 피해망상증, 환각·환청 등 통합실조증에(조현병) 시달리는 정신장

애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인 ‘베델의 집’은, 이 사회에 신체만 지지 말고, 스스로 창업해서 돈도 벌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베델의 집에서 정신 장애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질환의 치료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약물이나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고 ‘치료’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스스로 병을 체험하고 깊은 좌절감에 그러한 치료과정을 따르곤 합니다.

3. ‘베델의 집’은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베델의 집에서 생각하는 정신질환은?

베델의 집에서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이 증상의 완화와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그 사람 고유의 인생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연히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만나는 과정에서 진정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 베델의 집 철학과 이념’

베델이 육성한 ‘고층의 철학’과 당사자연구 홋카이도의과대학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5. 우라카와 베델의 집이란?

- 베델의 집(이하 베델)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을 체험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의 유지와 함께 서로의 고립을 막고 상부상조하면서 기업에 의한 지역 공헌을 목적으로 오래된 교회를 거점으로 1984년에 발족한 「마을 만들기」의 지역활동 거점
- 활동 이념은 「지역에 의해서」, 「사회복귀로부터 사회 진출로」, 「세끼 식사 보 다 회의」 등
- 「지역이 안고 있는 고층에의 참가」의 수단으로 비즈니스-창업에 도전. 과소화가 진행되어 사업소의 철수나 폐점하는 가게들이 증가한 가운데 히다카 다시마의 산지직송·출판사업, 회사를 설립하여 개호보험사업에 진출
- 2001년 자조활동으로 당사자 연구를 시작한다.
- 2002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일본 최초로 당사자가 이사장, 시설장에 취임하고 취업지원 거주지원을 한다.
- 현재는 정신, 신체, 지적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100명 이상의 멤버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시마의 산지직송과 출판, 강연, 직판 등 베텔의 사업 운영에 참여해서 지역에서의 취업도 목표로 하고 있다.

- 연간 3,000여명이 견학으로 방문하고, 연수를 받아들이고, 해외의 교류도 시작하고 있다.

6. ‘베텔의 집’ 발자취

: 베텔의 집 발자취는 조현병으로 인해 7년에 걸쳐서 입원생활을 한 어느 청년(현재 이사장 사사키 미노루씨)의 퇴원 축하부터 시작했다.

: 목표로 한 것은 단 하나,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 존중되고 한 마을의 주민으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7. 정신질환을 경험한 마을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 1) 우리의 질병의 체험은 누구에게도 유용하고 중요한 인생 경험이다.
- 2) 우리는 질병을 경험하여 장애를 가짐으로써 지역의 의료, 보건, 복지의 부족함과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의 많음을 통감했다.
- 3) 우리는 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 4) 질병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가지고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 5)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전문가」이다. 동료나 전문가의 힘을 활용하면서 자신과 동료들을 돕는다.

8. 창업 하자!

-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것 고민하는 것을 중요하게

: 다시마로 기업-사회복귀에서 사회진출/ 작업에서 창업으로! ‘안심하고 게으름 피울 수 있는 회사 만들기’

: 취직 지원, 창업 지원, 주거/음식의 지원, 계속지원

9. 베텔이 소중히 해온 것

9-1 당사자 연구와의 만남

「타인에게 이해 되지 않는 질병의 고생을 오랫동안 안고 온 동료들 전문가에 의한 묘사나 말을 일단 옆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게 자신의 체험을 내면부터 이야기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동료들」

9-2 베텔의 집 「요·사·쿠」 좋았던 점 & 더 좋게 하는 점 & 고생하고 있는 점

- 모든 조직의 생명선은 「인간 관계」이다.
- 일의 에너지의 8할을 인간관계로 소모한다.
- 베텔이 존중하고 온 주제는 「화해」이다.

- 그러자 채용한 것이 이번 주 고생과 SST의 「좋았던 점과 더 좋게 하는 점」의 커뮤니케이션
- 아래 베텔의 모든 회의는 바로 이 「요·사·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9-3 베텔의 문제지향

-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배설물처럼 문제나 고생이 발생한다.
- 그러나 비상 수단이라고도 할 「질병」이라는 도망갈 장소에서 벗어나고 「구체적인 삶의 고민」으로 문제를 현실화 하는 것이 좋다.
- 그것을 동료 끼리 공유해서 그 문제를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살기 좋다. 베텔이 배워온 것은 바로 이것이다.
-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고민이나 고생을 맡은 주인공이 된다」라는 전통을 육성해 왔다.
- 그래서 고생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두가 함께 말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9-4 자신이 고통의 ‘전문가’가 된다.

- 조현병 등을 가지면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연구자”의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자신이 고통의 전문가”로서 소질을 가지고 있다.
- 당사자 연구에서는 각각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서 환청에 대한 분야 망상에 관한 분야, 부모자녀관계 분야, 연애에 관한 분야, 일 관련 분야, 돈 관련 고생의 분야 등 생활에 밀착한 고생의 분야마다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 당사자 연구자의 성과는 많은 사람들에 공유함으로써 타인이 회복에 공헌할 수 있다.

9-5 베텔의 집의 당사자 연구

- 베텔의 집 당사자 연구는 혼자가 아닌 「공동의 연구」이다.
- 자기 진단은 직감이나 착상으로 그 동안의 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의 테두리 내 결론에 불과하다.
- 베텔에서는 혼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감동도 없다.
-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지혜를 짜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것이 성과로 탄생한다.

→ 당사자연구의 표어: ‘자신안에.. 동료들의 경험 안에 지혜가 있다. 아이디어가 잠들어 있다. 동료나 전문가 가족과 연대하면서 자, 오늘부터 “자기 스스로”함께 연구하자!’

자신을 돕는 힘과 문제의 가능성을 발견하자

- 거북함에 이르는 「조짐」을 알기
- 장면마다 적절한 새로운 「자신 도움방법」 할 수 있기
- 「도움방법」의 결과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더 독특한 「자신 도움방법」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 자신이 안고 있는 고생에,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찾아낼 것

10. 베텔이 지향해 왔던 것

첫째, 질병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

- 1983년 10월 하야카와 키요시가 우라카와 교회의 목사실에서 미야지마 미치코, 이 노우에 히토시, 기무라 히데아키와 함께 히다카 다시마의 하청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베텔의 시작입니다. ‘베텔의 집’의 과거는 문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문제와 함께 했고 그러한 문제를 통해 여러 새로운 만남과 그러한 만남에서 오는 지혜를 쌓으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텔의 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타인에 의한 관리나 지배적인 ‘안정’이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람다운 고생과 관계를 쌓으면서 만들어내는 ‘안정’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둘째, 질병이나 장애를 중요한 경험으로 사회에 발신하는 것

- ‘베텔의 집’은 질병이나 장애를 겪으며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삶, 가족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 ‘중요한 지혜’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베텔의 집’은 질병이나 장애를 겪은 경험과 체험을 다양한 형태로 지역 사회에 발신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 당사자 연구도 거기에서 탄생한 실천의 지혜입니다.

셋째, 기억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안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것

- 베텔의 발자취는 기업의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기업이라는 곳은 ‘돈’을 모아 그것을 운용해서 ‘돈’을 산출하는 활동입니다. 그렇기에 ‘돈’이 모이는 곳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곳에 맺는 관계 속에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안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만들기’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기업에 왔든 일을 하든 그것은 그 자체에 ‘진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것

- 베텔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걸어왔습니다.
- 그것은 ‘타인에 고용된’ 노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의 담당자로서 주체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나눠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베델은 ‘마음을 합쳐,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그러한 구조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을 통해서 사람만들기 지역만들기에 공헌 하는 것

- 베델은 '지역을 위하여'를 표어로 30년 이상 걸어왔습니다. 장애,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말로 중요한 지역사회의 일꾼이고, 필요한 인재로 활용되고 그것이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다카 다시마의 산지직송, 베델축제, 당사자연구, 방재활동, 국제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Ⅲ. 제언

‘베델의 집 가즈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일 하며 함께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회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며 일해 왔고 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에서 7년간 직업재활을 담당하며 당사자분들이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 또는 ‘기여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삶 안에 함께 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사회보장제도만으로 만족할만한 ‘행복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이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 습관 된 의존, 지지체계의 약함 등의 이유로 당사자의 용기와 노력이 쉽게 좌절 되었다.

당사자들에게는 턱 없이 높은 기준과 비장애인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당사자가 사회적 활동을 지속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할 때 「베델의 집 사람들」 「지금 이대로 괜찮아」 「베델의 집 렛츠! 당사자 연구」를 통해 베델의 집에서 말 하는 철학과 문화(‘안심하고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직장’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약점이 인연’ 등)와 스스로를 돕는 ‘당사자 연구’를 읽고는 당사자 분들이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환영까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적잖게 감동을 받았었다. 그리고 실제 베델의 집 당사자 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했고 베델의 집 연수를 통해 그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다.

베델의 집 연수 3박 4일 동안 일본어가 전혀 안되었지만 번역기와 손/발짓을 활용하여 베델의 집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타인과 공유함으로 강해지는 철학’을 토대로 ‘당사자 연구’와 ‘SST’를 활용하여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는 모습.

당사자는 약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하며 지역사회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마케팅을 통해 ‘편견 차별 환영대회’ 축제와 다양한 생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베델의 이야기를 책과 영상으로 엮어 내 베델의 집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현재 베델의 집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와 함께 고생하며 당사자 연구를 지속하고 좋은 결실을 맺고 계신 무카이야치 교수님 그리고 그의 파트너 가와무라 정신과 의사선생님까지 너무 이상적이고 멋진 곳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당사자분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당사자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당사자 연구’에 대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연수기간 동안 본 시설에 있는 회원분들 생각이 많이 났고 우리나라에서 베텔의 집과 같은 환경까지는 어렵겠지만 ‘정신장애인의 가슴 뛰는 삶의 동행 행복 주’를 위해 당사자와 함께 우리만의 철학을 가지고 더욱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서초열린세상 Recovery Workshop 결과보고서



주 최	서초열린세상	
기 간	2018.11.12.	
장 소	국립정신건강센터 12층 마음극장	
참석자	팀 명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명 단	최용수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8.11.12.
	시 간	4시간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8년 서초열린세상 Recovery Workshop 결과보고서

I. 정신장애에서의 회복과 자기이해

1. 정신질환(장애)에 대한 실천 모델 비교

	임상모델 (생의학모델, 생심리사회적모델)	장애모델 (사회적 장애모델)	다양성모델
문제의 근원	질병	정신병과 사회적 반응의 결합	사회
치료	필요하고 적절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음	원하는 경우에만, 원하지 않을 경우 불가함.
전문성	전문가가 가짐	전문가와 당사자가 공유	소비자가 가짐
정신건강전문가의 중심적 역할	증거기반 치료	옹호	소비자 행동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의 역할	치료 받기	상호 의존성 개발 : 적절한 지원과 자기관리 기술 개발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치있게 생각하며 자기 편견적 믿음의 감소
강점	명확한 설명 모델을 제공, 체계적으로 발전된 치료법 제공	정신질환을 이전만큼 강조하지 않음. 장애차별금지법과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사회 통합 강조	병리화하지 않음. 소비자에게 힘(권력)을 부여함.
약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님. 완치를 약속하지만 실현되지 않음.	가부장적인 접근법을 유지함.	모든 사람이 정상이면 자원제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2. 이런 건 회복이 아니다.

- (1) 회복은 반드시 치료 받지 않거나, 진단이나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
- (2) 회복은 정신과의 치료진, 가족이 당사자에게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님.
- (3) 회복은 재활을 대신하는 새로운 단어가 아님.
- (4) 회복접근은 이론적 모델이 아님.
- (5) 회복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져왔던 것은 아님.
- (6) 회복접근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가 아님.
- (7) 회복접근은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당사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음.

3. 두 가지의 회복 의미

- (1) 임상적 회복(Clinical recovery) : 정신의학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정의된 개념으로 증상의 제거, 사회적 기능의 복원 및 그 외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 (2) 전인적 회복(Personal recovery) :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들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임상적 의미에서의 회복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삶의 태도, 가치, 감정, 목표, 기술 또는 역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임. 그리하여 질환으로 인한 한계 내에서도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기여하는 형태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정신질환이 미치는 극도의 부정적 영향을 뛰어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일임.

4. 전인적 회복의 4가지 핵심 영역

영역		정의	주요질문	정신질환에서의 중요성
1.희망		앞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 관계 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고유한 인격체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긍정적 미래라는 희망을 날려버림
2.정체성		만들어주고,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지속적인 인격 특성	나는 누구인가?	정신질환은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을 악화시킴
3.의미	직접적 의미	“정신질환”이라는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함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정신질환은 심오한 경험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필요함

영역		정의	주요질문	정신질환에서의 중요성
3.의미	간접적 의미	직접적인 의미가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으로 통합됨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정신질환은 의미 있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짐 정신질환 자체와 그 사람의 반응, 정신건강서비스와 광범위한 사회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4.자기에 대한 책임		전 인생에 걸쳐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인식, 감정과 행동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 전인적 회복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

(1) 긍정적 정체성 형성

- 정신질환은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임. 질환이 아닌 사람으로서 삶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포함됨. 이것은 자신과 정신질환을 구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목표는 한 쪽 측면에서 양 쪽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임.

→ ‘나는 권리의 주체이다 & 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2) 정신질환을 프레이밍하기

-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이라고 이해하는 개인적 경험에 대해 스스로 적합한 의미를 찾아가는 일임. 자신의 삶 전체를 정신질환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부분으로 국한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임.

(3) 정신질환 자기관리

- ① 치유 : 정신질환 제거
- ② 적응 : 정신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 ③ 긍정적 재구조화 : 정신질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 ④ 최소화 : 정체성에 대한 정신질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
- ⑤ 대처 : 정신질환보다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며 잘 지내는 것

※ 변화의 핵심은 임상적으로 관리 받던 존재에서 자기관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상태로의 전환임.

(4)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개발하기

- 발병 이전과 동일하거나, 조금 달라졌거나 혹은 아주 새로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갖는 것임.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은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초석이 됨.

6. 정체성과 관계

- (1) 관계는 다른 잠재적 자아가 형성되고, 강화되거나 통제도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함.
- (2) 두려운 정체성보다 희망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을 제공함.

II. 회복을 위한 자기이해(Self-Awareness for Recovery) 소개와 활용방법 안내

1. 회복을 위한 자기관리 발간 목적

- 회복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자기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짐.
-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고,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전인적으로 회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2. 워크북의 구성

(1) 주제영역별 4개의 장으로 대분류

- ① 1장 회복 맛보기 - 회복에 대한 기본 개념 소개
- ② 2장 회복 기본 다지기 - PACE 저자소개 및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③ 3장 회복 만나기 - PACE 본문 내용과 자기이해를 돕는 질문
- ④ 4장 회복 굳히기 - 배운 내용 점검 퀴즈, 회복에세이 작성

(2) 전체 100page, 부록으로 구성

- ① 1장, 4장, 부록 - 서초열린세상 자체제작
- ② 2장 - A New Vision of Recovery + 자체제작
- ③ 3장 - PACE + 자체제작
- ④ 부록 - 회복 에세이, 아들러가 말한 메시지 필사

3. 진행자 가이드북의 구성

- 회복을 위한 자기관리 진행방법, 유의사항 소개
- 서초열린세상 직원들과 담당리더 3명이 1년 동안 공부하며 함께 만든 질문과 답변 정리, 참여자들의 답변도 함께 수록하여 진행자가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진행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

4. 진행방법

■ 진행순서 ※약 1시간 소요 ※1장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며, 1회 진행분량은 기관에서 조정 	지난 시간 Review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나눔(5~10분)
	오늘의 내용 파악
	그 날의 본문을 함께 읽은 후, 진행자의 설명(10분)
	오늘의 활동지 or 질문 작성
	자신이 가진 생각, 경험을 알기 위한 활동지 작성(10분)
	작성한 내용 발표
	모든 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 공유, 피드백 제공(30분)
	마무리
그 날의 핵심내용 요약, 느낀점 나눔(5분)	

5. 진행 시 유의사항

- ① 1회 진행 분량은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고정적이지 않음)
 -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이해정도, 질문내용, 경험여부, 내용의 깊이에 따라 1시간 내에 진행 가능한 분량을 조절함.
- ②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성하되, 발표 및 토의할 질문은 선택 가능함.
- ③ 진행자는 워크북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요함.
- ④ 워크북 내 전문적인 용어, 어려운 단어는 참여자들과 함께 검색함.
- ⑤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진행자는 비심판적인 태도, 모든 참여자들에게 발언권 제공, 경청
- ⑥ 기관에 있는 모든 시간에서 회복관계경험, 회복을 실천하는 기관문화를 조성해야 함.

6. 워크북의 활용방법

<서초열린세상 진행방법 소개>

- ① 진행일정 : 2017년 2월 14일 ~ 2018년 4월 17일,
매 주 화요일·목요일 10시 40분 ~ 11시 40분
- ② 참여인원 : 서초열린세상 이용회원 약 20명
- ③ 수행인력 : 주담당 석진아 팀장
부담당 조라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강소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④ 진행방법 : 소그룹 3개조 분반 활동 / 담당리더 3명과 사전 리더모임 실시 / 담당리더 (진행 및 일지 작성) + 직원(보조 및 참여자 역할) / 회복워크숍 및 레크리에이션, PACE문예대회 실시

7. 회복을 위한 자기관리 내용을 실천으로 돕는 Tip 소개

(1) 기관의 노력

① 회복 지향적인 기관 문화와 분위기

- 회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직원은 회원의 전인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함.

② 행정업무의 간소화, 전폭적인 직원교육 지원

-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여 직원들이 회원들의 회복활동지원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원의 관심분야, 회원의 회복지원을 돕는 각 종 교육참여기회 및 교육비 제공해야 함.

③ 회원과 신뢰관계 형성

- 회원과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추구
- 관계형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 관계 형성을 위한 1:1 외부활동 허용
- 담당직원이 면담 횟수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제공, 수시 면담 실시

④ 회복패러다임에 기반한 문서 양식과 사업내용

- 연도별 기관 사업방향 및 핵심사업 내용 반영
- 회원과 함께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질을 점검 및 평가
- 전인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주간활동 프로그램 내용

(2) 직원의 노력

① 직원의 자기성찰과 이해

- 자기성찰 및 이해를 통해 회원들의 감정, 정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음.
- 회원을 병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회원과의 정서적 교감 및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됨.

② 회복패러다임의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

- ‘환자로서의 정체성 vs 전인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회복은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③ 끊임없는 학습과 다양한 분야에 관심

- 지속적인 직원 스터디 및 교육참여가 필요함.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독서를 통해 회복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전인적인 회복에 필요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데 도움이 됨.

장기근속자 국외 선진지 연수 보고서



주 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늘푸른동산, 그루터기, 열린일터	
기 간	2018년 10월 5일(금) ~ 13일(일)	
장 소	이탈리아(베니스, 피렌체, 로마)	
참석자	팀 명	장기근속자(세부내용 참조)
	인 원	총 9 명



재단법인 · 인천교구 · 천주교회 ·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기근속자 국외 선진지 연수 결과 보고

I. 연수개요

□ 목적

장기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외 선진 사회복지 기관방문 및 협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복지에 대한 비전을 재수립하고, 시설의 운영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유도하고 장기근속자의 중추적 역할을 유도한다.

□ 사업개요

- 일시 : 2018년 10월 5일 ~ 2018년 10월 15일(7박9일)
- 장소 : 이탈리아 사회복지기관 방문 및 주변관광
- 참석자 : 서현정, 김미숙, 정승영, 임승철, 임현주, 금민희, 김진애, 김은숙, 박성묵

□ 일정

일자	도시	시간	관광일정
10/5	인천 베니스	10:25 15:05	인천국제공항출발 베니스 국제공항 도착
10/6	베니스		호텔 조식 후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 관광 ● 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성당, 두칼레궁전, 탄식의 다리 플로리안카페, 부라노섬, 산타마리아델라살루테성당, 리알토다리 / 젤라또, 파스타, 피자 오후자유시간 호텔 이동 및 휴식
10/7	피렌체	10:12 12:05	호텔 조식 후 베니스출발(by Italo) 피렌체도착 ●두오모성당의부관람,시뇨리아광장,미켈란젤로언덕 호텔 이동 및 휴식

일자	도시	시간	관광일정
10/8	로마	16:10 17:30	호텔 조식 후 피렌체출발(by Italo) 로마도착 트레비분수야경 호텔 이동 및 휴식
10/9	로마		호텔 조식 후 “San Francesco ONLUS” 기관방문 - 버스1회 왕복요금만 책정 + 기타 전일정 도보이동 호텔 이동 및 휴식
10/10	로마	7:00 21:00	호텔 조식 후 남부투어 - 입장료, 수신기비용, 미니버스비용포함(중식불포함)
10/11	로마	8:00	호텔 조식 후 바티칸투어
		17:00	- 패스트랙 입장료, 수신기비용포함(중식불포함) 근처 식당&젤라또
10/12	로마	16:00 17:00 19:40	호텔조식후 오전자유시간 공항으로 출발 공항도착 로마 국제공항 출발 / 인천 향발
10/13	인천	13:55	인천국제공항 도착 해산

II. 연수지 현황



이탈리아 공화국 (이탈리아어: Repubblica Italiana 레퍼블리카 이탈리아나 [*], 문 화어: 이딸리아, 음역어: 이태리(伊太利))은 남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와 지중 해의 두 섬 시칠리아 및 사르데냐로 이루어진 단일 의회 공화국이다. 북쪽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맞대 고 있다. 또 주변 바다로는 동쪽의 아 드리아 해, 남쪽의 이오니아 해, 서쪽 의 티레니아 해와 리구리아 해로 둘러 싸여 있다. 이탈리아 영토 안쪽에는 위 요지 국가인 산마리노와 바티칸 시국 이 접하여 있으며, 스위스 영토 안쪽에

이탈리아의 월경지 영토인 캄피오네디탈리아가 있다. 국토 면적은 301,338 km²이며, 온 대 기후대에 속한다. 인구는 60,200,000여 명으로,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고, 전 세계 기준으로는 23위이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로마를 비롯하여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피렌체, 토리노, 베네치아 등이 있다. 유명한 폼페이도 이탈리아에 있다.

오늘날 '이탈리아'로 알려진 이 땅은 에트루리아나 고대 로마 등 유럽의 여러 문화와 민족의 요람이었다. 수도 로마는 옛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였으며 수 세기 동안 서 구 문명의 정치문화적 중심지였다. 로마가 몰락하자 이탈리아는 롬바르드족과 동고트족 등 게르마니아 부족과 몽골족, 사라센 등 오랫동안 타민족의 침입에 시달렸다. 수백년 뒤 이탈리아에서는 이후 유럽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르네상스가 탄생하였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이탈리아는 수많은 왕국(사르데냐 왕국, 양시칠리아 왕국, 밀라 노 공국 등)과 도시국가들(베네치아 공화국 등)로 분열되었다가 1861년에 이르러서야 " 리소르지멘토"라는 격변기를 겪으며 통일을 이루었다. 19세기 말부터 양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이탈리아는 식민지를 거느리게 되어 리비아, 에리트레아,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 에티오피아, 알바니아, 로도스 섬, 도데카니사 제도, 중국 텐진까지 지배하였다. 원래 군 주제 국가였으나(이탈리아 왕국) 1946년에 공화정이 되었다. 이탈리아는 1957년 유럽 공 동체(EC)의 창립 회원국이었으며, 1993년에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이 되었다. 이탈리 아는 1999년에 유로화를 채택하였다.

오늘날의 이탈리아는 민주 공화국이며, 이코노미스트지 조사에서 삶의 질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 나라는 높은 생활 수준을 구가하며, 2010년 인간 개발 지수는 24위였다. G8과 G20 소속이며, 2011년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세계 8위이다. 이탈리아는 오늘날

유럽 연합의 창립 회원국으로,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된 나라이기도 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원년 회원국이다. 그 밖에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세계 무역 기구(WTO), 유럽 평의회, 서유럽 연합의 일원이다. 이탈리아의 군비 지출은 세계 8위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 공유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특히 로마)는 정치와 문화 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 식량 농업 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 식량 계획(WFP)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한다.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더불어 유럽의 정치, 사회, 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요 지역 강국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세계화된 나라이며, 2009년 국가 브랜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 또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은 뉴질랜드와 버뮤다 다음 세계 19위로 길다. 또 관광 대국인 이탈리아는 해외에서 4,370만 명이 방문하여 세계에서 5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나라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서(44곳) 보여주듯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Ⅲ. 방문지 및 연수내용

□ 이탈리아의 사회복지 이해

이탈리아의 헌법 제38조와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사고,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에 대한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노조결사 등 제노동권이 보장되어 있다.

사회복지제도 중 이탈리아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탈리아 복지체제에서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은 빛과 그림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어느 측면에서 볼 때 이탈리아는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학교 및 노동시장 모두에서의 사회통합 정책의 혁신 1971년 법률 118호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장애아동이 공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학교 체제 내로의 이 강력한 통합 정책은 확고했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법률 104/1992호에 따라 다른 생활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Legge-quadro per l’assistenza, l’integrazione sociale e i diritti delle persone handicappate”).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적인 법률 체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서비스의 차원에서 보면,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 공공 서비스의 부족과 현금 급여(연금과 사회부조 둘 다)에 대한 선호가 현물급여보다 강해서 장애인 가족들이 대부분의 수발 책임을 계속해서 떠맡고 있다(ISTAT 2010).

2004년과 2005년의 자료에 따르면 약 2백만 6천여 명의 장애인은 자택에 거주하고 있고, 19만 명의 장애인들이 시설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가장높은 장애 비율은 자연스럽게 노인층에서 나타나는데, 2004

년과2005년 사이에 74세에서 79세 사이는 17.75%, 80세 이상은 44.47%로 나타났다 (ISTAT 2010).

현금 급여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공단(INPS)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18세부터 65세 사이의 100%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위한 장애 연금(pensione di inabilità), 실직 상태이며 74%에서 99% 사이의 등급 판정을 받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이들을 위한 월별 수당이다. 18세이하의 청년층에게 INPS는 사회 및 학교 통합 지원이 목적인 특별 월별수당(assegno mensile di frequenza)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위에 설명된 바 있는 공공서비스수당 수급권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의 65세 이상의 장애인들 역시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수당(assegnosociale)을 수급받게 된다. 이런 수당들 외에도 직장을 가진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급여 역시 존재한다. 장애보통수당은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그것이다. 또한 의존성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양육휴가 연장, 야근 면제, 조기 은퇴와 같은 특별 서비스도 제공된다.

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괄적 상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의존성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통합재활시설 또는 요양원, 장애인복지센터와 같은 준거주시설, 그리고 재가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장애인의 93%는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ISTAT 2010). 따라서 가족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보조와 돌봄에 있어 주요 책임을 지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이탈리아 가족의 32.8%가 방문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13.2%만이 방문보건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둔 이탈리아 가정의 48.2%는 여전히 돌봄 노동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외부적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비공식 도움과 민간/공공서비스 모두)(ISTAT 2010)(출처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탈리아의 기관방문지 “San Francesco ONLUS”

사회 협동조합 San Francesco Onlus 는 1986 년 Don Giuseppe Bisson에 의해 설립되었다. Don Juuseppe Bisson 은 육체적, 발달장애 아동에게 헌신했으며 여기에서 사회적 어려움을 퇴치한다는 비전을 가진 자원 봉사자 그룹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협동 조합은 장애 재활 분야 에서 30 년의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의 주요 원칙과 목표는 시기적절한 솔루션을 찾고 필요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분야에서의 지난 수년간의 직접적인 경험 덕분에 본 기관에서는 그 사람의 복지가 주변 환경에서 유래되었다는 인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기관의 목표는 가족 상황이 잠재된 곳에서도 환자 전체를 돌보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기관의 직원들은 효율적인 도움, 재활, 교육학, 예술적, 레크리에이션 및 관계형 행동으로 표현 될 수 있도록 매일 연구하며 치료를 하고 있다.

1) 기관에서 하는 일

① 간호지원

시설 또는 지역의 간호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병원 서비스 사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구축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환자의 도움 요구에 응답하고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활동의 형태를 취한다.

- 직접 간호지원, 야간지원, 압력 부상치료, 혈당 검사, 근육 내 약물, 요로 협착의 관리
방광 카테터 삽입, 장기간의 관류, 볼러스의 관류, 피내약, 전방 관류 조절, CVP 포지셔닝, 배수 관리, 단순 봉대, 복잡한 약물, 관장, 수술후의 재교육

② 재활센터

본 기관의 외래 재활 서비스는 유치원 및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개개인 또는 소규모 재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 대상 재활서비스

언어치료, 심리치료, 학교와의 연계서비스, 언어 치료,인지, 신경 심리학 및 정신 진단의 평가.

■ 성인 외래재활

신경 기능 재활 (neuromotor rehabilitation);

자세 교정 (Souhard-Mezieres);

언어 치료

심리적 지원

부모 훈련

심리 치료

전문가 방문 (정신 의학, 신경학, 생리학, 심리학).

③ 데이케어 및 주거센터

2004 년 산 프란체스코 사회 협동 조합 (San Francisco Social Cooperative)은 라치오 지역에서 성인용 정신 운동 재활 활동을 창출 할 수있는 주거 센터 운영을 허가 받았다 (제 26 조). 2005년에 그는 정신 운동 재활 센터로서 라치오 지역에서 인정 인증을 받았다. 현재 주거 지역에서는 12명 , 준 주거 지역에서는 15명 (관료적 / 조직적 문제로 인해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이용인은 현재 2명).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대상자가 자신의 한계를 더 잘 인식 하고 그룹의 문제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정신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감정"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단절된 형태를 보인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사고성을 개발하고 그들과 "타인"관계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외부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관리, 자아 보살핌과 존경심에 대한 더 큰 자율성 경험에있는 것 등).

2) 직원의 구성

사회복지사,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신경과, 간호사, OSS, 그리고 가족, 재활 센터의 중심, 그리고 종종 근본적인 원인과 협력하여 심리학자로 구성

- 사진자료



IV. 연수소감(기관방문 중심)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형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좀 다른 것은 이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 후 필요한 서비스 기관을 정해주고, 서비스 이용 금액이 "무료" 라는 차이를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와 큰 차이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이용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놀이치료사 정승영]

우리의 방문을 San Francesco Cooperativa Sociale Onlus에서 마음을 다해 준비 해주신 정성과 환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분 좋게 산책길을 걸어 간 후 마주하게 된 센터 건물 내부는 깔끔했고, 밝고 환한 미소의 직원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며 맞아 주었다.

기관방문을 통해 우리와 유사한 형태와 내용으로 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법인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동일한 건물에서 이용과 입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새로웠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용과 입소 시설이 같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온돌 문화의 맨발 생활인 우리나라의 주거환경과 차이를 확인하면서 낯설음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입소 중인 당사자들의 감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짧지만 소통할 수 있었고, 어디든 누구나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또 반대로 다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우리들의 방문에도 농담을 건네 주는 이도, 악수를 청하는 이도,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도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San Francesco Cooperativa Sociale Onlus에서도 당사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그들의 미소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_김진애]

기관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시설 운영업무 만족도가 높아 좋았습니다 [시설 관리 임승철]

- 집단프로그램 참관 시 방문한 사람들을 자유로이 대하는 이용인과 이용인을 존중하는 모습의 직원을 보면서 장애인 권익옹호나 인권 존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음.
- 우리 시설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시설 분위기와 직원이 주는 따뜻함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이용인의 표정도 기억에 남음.
- 지난 번 스웨덴, 핀란드 연수 보고에서 지원의 초점이 신체적 장애인보다는 정신적 장애인에 맞춰져 있다는 발표내용을 들었음. 이번 방문한 기관의 사업 내용도 주로 정신적장애, 특별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고 신체적인 장애인은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함. 국가는 다르지만 유럽이라는 테두리에서의 장애를 보는

관점이 일치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봄.

- 성인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 영역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거주 이용인에 대한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음.[보호작업시설 사회복지사 금민희]

기근속자 국외 선진지연수는 참석자들과 함께 이탈리아 나라와 관련된 정보 및 기관 방문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참여한 연수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한번도 가보지 못한, 늘 선망의 대상이었던 유럽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참여자들과의 연수목적에 대해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 같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는 가족끼리도 장시간 여행을 함께하다보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티격태격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기 일쑤인데 하물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7박 9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확실히 장기근속자들이 오랫동안 함께 걸어 온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서로 배려하고, 힘들면 응원해주는 모습들, 누구하나 얼굴 찌푸림없이 즐겁게 함께했던 연수는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억에 남을 거 같다.

그리고 연수 가운데 기억에 남는 점은 기관방문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온루스 센터에서 외부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주었던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의 성의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나 또한 외부손님이 본 센터에 방문을 하면 정성껏 응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장애인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굳이 장애인의 인권, 자기결정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녹아져있는 모습에 우리나라 또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해본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김은숙]

탈리아와 한국의 기관을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구성과 기관내 분위기는 비슷하였다. 사전조사에서부터 발견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반해 이탈리아의 기관은 대부분 생활시설(residential)과 이용시설(outpatient)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였다. 우리나라와 의료보험 체계가 상이하므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약품을 처방 및 투약한다는 점도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 할 수 있겠다.

방문했던 기관은 본관과 분위기면에서 매우 흡사한 느낌을 풍겼다. 12명의 거주인이 생활하고 100여명이 이용인이 치료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청결이 매우 잘 유지되고 있었고, 이용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용인 중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그러하였다.

중증 지적 및 자폐성 성인과 함께 매년 8월이면 3주간 캠프를 떠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볼 때 일방적인 프로그램의 제공보다는 이용인 개개인이 하고싶은 것을 묻고 그에 따라 일정을 조절하며 느리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용인의 의사가 프로그램 진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느껴졌으나, 그로인해 기관 전체의 분위기가 다소

활기차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근래 프로그램 계획 시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본 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담당자의 태도와 함께 실제 이용인 의사를 반영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료된다.
[물리치료사 임현주]

복지관 장기근속직원들과 함께 하게 될 해외연수로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인천 공항에서 출국하여 12시간의 비행 후 입국한 곳은 이탈리아 베니스에 위치한 마르코폴로공항이었습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이탈리아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이 있었고, 더욱 감탄하였던 곳은 베니스 본섬이었습니다. 바다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난개발로 인하여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피렌체, 로마일정까지는 문화재와 각 도시를 관람하며 이탈리아역사에 대해 느끼고 장애인에 대해 차별 없는 인식을 가진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을 직접 보며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접근이나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방문은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San Francesco Cooperativa Sociale Onlus>으로 선정하여 진행되었고, 로마 외곽지역에 위치한 본 기관은 자연 속에서 파스텔 톤의 밝은 실내는 무척이나 신선하였고, 장애인들의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가 갖춰진 모습을 통해 이탈리아 장애인 정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방문을 진행하고 느낀 점은 이탈리아의 장애인정책과 시설의 운영방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장애에 대한 동등한 인식으로 인하여 시설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달려온 우리에게 이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듯 멋진 풍경들을 우리의 눈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계속되는 관람과 여행으로 인하여 지친기색이었으나 멋진 풍경을 가슴에 담아서 인지 밝은 얼굴로 연수를 계속하였습니다. 꼬불꼬불 도로를 달려 도착한 이탈리아 남부, 세계가톨릭의 산지인 바티칸, 그리고 로마제국의 영욕을 함께한 콜로세움까지... 역사의 도시답게 많은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또 한 번 이탈리아의 대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박 9일간의 연수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서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긴 역사에 따른 선진적인 시민의식에 대해 놀라기도 하고, 때론 부러워도 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였기에 연수가 더 뜻깊었습니다.

일상을 탈출했던 연수기간. 이런 기회가 있었기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힘들고 지치는 일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문화지원팀 사회복지사 박성묵]

2018 전문자료집 - 교육·연수보고서

남동발간 2019-5호

- 발행일 : 2019년 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장 미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